



발간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며 배워나갑니다. 특히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이 배움의 과정은 인간의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습니다. 배움의 기초는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질문으로 이어지며, 질문에서 탐구로, 탐구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영유아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걷기, 뛰기 등의 신체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새로운 사물과 환경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형성하게 되면서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영유아기의 발달은 놀이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놀이 경험은 자발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나가며 즐거움과 새로움을 깨닫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개된 4차 산업혁명에는 전 세계 다양한 영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육·보육계에도 미래 인재인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핵심적 역량 함양을 위해 비판적 사고/문제해결(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ion), 협업(Collaboration) 능력, 즉 4C를 지원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영유아 스스로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하면서 통합적인 배움이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가는 방식이자 힘인 놀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배움에 주목하여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면서 창의성을 기르는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놀이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배움을 놀이에서 찾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이 자라나는 현장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전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현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보육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기꺼이 제공해주신 보육교직원, 장장 8개월간 집필과 사례수집에 애써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나성웅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 자료집 안내

-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토대로 하되, 영유아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배움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가정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2023년은 영아놀이, 문해놀이, 디지털놀이 세 분야로 구성하여 놀이 속에 숨겨진 다양한 배움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위한 교사 지원 방법과 사례 등을 담아 현장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놀이를 통한 다양한 배움의 내용들과 교사 지원 방법을 각 자료집별로 차별화하여 구성하였으며,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사진 및 영상(QR)을 함께 담아 배움을 찾는 놀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자료집이 보육과정 운영 및 학습공동체 운영 등에 활용되어 보육교직원의 전문 역량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널리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아놀이

영아 놀이발달 및 특성,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영아의 놀이 특성을 반영한 교사의 놀이 지원 방안을 담았으며, 영아 놀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문해놀이


영유아기 발현적 문해력을 키우는 문해 지도 방안, 현장의 다양한 문해지도 사례 및 가정 연계 방안, 그리고 문해지도와 관련한 현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놀이

디지털 시대의 유아 미래교육을 어떻게 지원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디지털 놀이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놀이 지원 방법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포럼 영상

 유튜브 '한국보육진흥원' 채널



자료집 파일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 알림마당 ▶ 발간물 ▶ 기타발간물

CONTENTS

I. 놀이에 대한 이해



1. 놀이의 가치	08
2. 놀이의 특성	10
3. 영아 발달과 놀이	10
4. 영아 놀이의 특성	17

II. 표준보육과정 이해



1. 0, 1세 놀이	20
2. 2세 놀이	22

Ⅲ. 교사의 놀이 지원



1. 민감한 관찰	26
2. 관찰에 근거한 놀이 지원	35
3. 영아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 지원	36
4. 놀이 지원의 현장 사례	70

Ⅳ. 영아놀이, 이것이 궁금해요



1. 일과운영	84
2. 놀이공간	85
3. 놀이자료	87
4. 상호작용	89
5. 안전	91

배우고
다

영아놀이

놀이에서 찾아
라



I. 놀이에 대한 이해



1. 놀이의 가치	08
2. 놀이의 특성	10
3. 영아 발달과 놀이	10
4. 영아 놀이의 특성	17



I. 놀이에 대한 이해

2020년 9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정 이후 국가는 영유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놀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 영아의 놀이를 재조명하여 이해하고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아의 경험과 교사 지원의 핵심을 정리하여 영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아의 특성이 반영된 교사의 놀이 지원은 영아가 주도적인 놀이의 주인공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놀이의 가치



‘흔히 놀이는 교육을 멈추고 쉴 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 놀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교육이다.’ - Fred Rogers(NAEYC, 2019 재인용)

생후 3년까지의 경험은 애착 관계, 배움, 사회적, 감정적 기술의 기반이 됩니다. 아이들은 생후 직후부터 주변 환경을 관찰 및 탐색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놀이를 하는 동안 영아들은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신체적,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고, 상상 속의 이야기를 실현하면서 자신감을 쌓고 능력을 시험합니다. 영아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답이 정해지지 않은 놀이를 할 때 교육의 기반을 쌓게 되고, 무엇보다 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얻게 됩니다(NAEYC, 2019).

놀이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데, 놀이의 기본은 갓난아기가 주변 사람들 및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첫 사회적 웃음을 보였을 때 받았던 반응은 차후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될 더 복잡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상호작용들은 놀이적 행동에서 시작되는데, 놀이라고 인지하기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놀이를 할 때는 랜덤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아는 길가에 웅덩이들을 밟고 지나가다 물 있는 곳을 밟으면 물이 튈다는 인과관계를 실험하고 있고, 세계 밟았을 때 물이 더 튀는 것을 보며 비교 대상을 찾고 물에 젖은 느낌을 느끼며 촉감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영아는 수·과학의 기초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Cohen & Emmons, 2017).

놀이는 영아의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영아는 언어를 사용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기 한참 전부터 자신의 감각을 이용하여 세상을 탐구합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속도로 지식과 경험을 넓혀갑니다. 놀이는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대·소근육 발달 등 모든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물과 사람들을 탐색하면서 영아는 ‘부드럽다, 무겁다, 미끄럽다, 차갑다’ 등 사물의 성질을 배우고, ‘크기, 순서, 번호, 패턴’ 등을 통해 인과관계나 시간의 순서 등 사물의 관계를 배우며 주변 환경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을 배웁니다.

놀이는 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용하게 될 문제해결 능력, 상호작용 혹은 협상 능력, 감정 해소 능력, 위험 부담, 유동성, 끈기, 자기 주도 능력 등을 배우는 중요한 도구이며(Pathways, 2019), 영아의 스트레스와 갈등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놀이는 아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알게 되고 새로운 문제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쌓는 과정입니다. 움직이고 말하고 물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즈음 영유아들은 집중력을 배우고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결정 능력, 자제력, 협상 능력 등을 배웁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계속하고 싶은 아이들은 놀이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조절하는 많은 기술들을 배웁니다(Galinsky, 2010). 즉, 놀이 도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벌어진 갈등을 해소하거나 모두에게 공평한 규칙을 만들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는 집중력을 길러줍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점차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Wang & Barrett, 2013). 아주 어린 영아는 상대가 만드는 웃긴 표정에 잠시 집중할 수 있지만, 조금 큰 영아는 공들이 떨어져 굴러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고 유아는 여러 조각 퍼즐을 완성할 만큼의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에 능동적으로 집중해 있는 상태를 a state of flow(Csikszentmihalyi, 2014)라 부르는데, 이 역시 놀이를 통해 길러 집니다. 이 능력은 아이가 점차 더 복잡하고 어려운 배움의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이가 노는 동안 교사는 아이가 계속 시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제안해야 하며, 아이의 언어와 행동을 늘려가거나 놀이의 구성을 단순하게 혹은 복잡하게 만들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놀이는 창의력을 증진시킵니다. 아이는 놀이를 통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창의성을 기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법을 보여주면 아이는 배운 방식으로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나, 아이에게 장난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스로 찾아내 보라고 하면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Bonawitz et al, 2011). 따라서 아이가 놀이하는 방식에 덜 개입하고 아이가 스스로 노는 방식을 터득하게 도와준다면 아이들은 훨씬 오랫동안 흥미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2. 놀이의 특성

놀이는 매우 다양한 정의와 특성으로 표현되는데, Peter Gray(2008)는 다음과 같이 놀이의 성향을 정의하였습니다.

① 놀이는 노는 사람이 정해야 하며, 재미를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②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놀이의 내용을 결정하며 그들이 놀이의 구성과 규칙을 정한다.

③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놀이를 중단할 수 있으며 놀이에 집중하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④ 놀이는 상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른 규칙을 따른다. 또 놀이를 통하여 상호 작용, 끈기, 협력 등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나눈다.

아이는 성인의 지시를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스스로 고른 장난감과 재료를 가지고 놀면서 가장 잘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위와 같은 놀이의 특성을 바탕으로 아이의 놀이를 지켜보면서 각 아이의 놀이를 지켜볼지 개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AEYC, 2019). 이에 교사는 영아 발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각 영아의 발달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놀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발달을 알고 이해하는 교사는 영아에게 맞는 소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각 영아가 흥미로워하는 방식으로 실내·외 놀이 환경을 준비하여 배움의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영아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3. 영아 발달과 놀이

영아들의 일과를 보면 먹고 자고 배설하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 이외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에 열중합니다. 생후 5개월 정도에는 딸랑이나 사물을 흔드는 놀이를 즐겨하고, 12개월 정도가 되면 사라졌다 나타나는 까꿍놀이를 좋아합니다. 18개월 된 영아는 종이블록 몇 개를 쌓고 무너뜨리는 놀이를 반복적으로 즐깁니다. 24개월 된 영아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오르며 놀고, 30개월 된 영아는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는 흉내를 내며 놀이합니다.

이렇듯 모든 영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양한 놀이에 몰두하며, 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주변 세상을 배워 나갑니다. 또한 교사, 또래 등과 놀이하면서 사람과의 유대 관계도 형성해 갑니다. 이처럼 영아의 놀이는 한 가지 놀이로만 나타나지 않고 발달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의 놀이 유형으로 나타나므로, 교사가 영아들이 즐겨 참여하는 놀이 유형을 알고 파악하는 일은 영아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영아의 다양한 놀이 유형을 감각 탐색, 신체운동, 역할쌓기, 말놀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각탐색놀이



영아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아 보는 등 오감각을 활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합니다. 사물을 탐색하고 조작해 보는 경험은 새로운 개념 형성이나 문제해결 능력 등 인지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영아는 본능적으로 주변 사물과 환경에 호기심이 많고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탐색하는 과정을 놀이로 즐깁니다 (신윤승, 신혜원, 2022).

영아가 즐기는 감각탐색놀이는 오감각을 활용하여 온몸으로 감각을 경험하는 놀이입니다. 0~1세 영아는 사물을 쥐는 능력이 능숙하지 않아서 손바닥 전체로 치거나 만지기 등의 방법으로 놀이하다가 1세가 되어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사물을 잡고 간단히 조작하는 놀이를 즐깁니다. 이 시기는 무엇이든지 입으로 탐색하기를 좋아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2세는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오감각을 활용하여 궁금한 것을 탐색하며 즐깁니다.

감각탐색놀이를 위한 교사 지원

- 영아는 대상 영속성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므로 물건을 숨기고 찾는 까꿍 놀이를 충분히 즐기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영아에게 “어디에 있지?”, “여기 있다!”와 같이 언어적으로 즐겁게 상호작용한다.
- 영아의 오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각적, 촉각적 놀잇감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주변의 자연환경과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영아가 감각으로 탐색을 즐길 때 교사는 주의 깊게 관찰하며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몸짓, 표정, 언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격려한다.
- 영아가 흥미를 보이는 물건이나 재료는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탐색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영아는 새로운 자극이나 교육적 경험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시간적 환경을 제공한다.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2) 신체운동놀이



0~1세 영아가 즐기는 신체운동놀이는 영아의 신체운동 발달 능력을 토대로 합니다. 0~1세 영아는 이동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도 발차기, 팔 흔들기와 같은 놀이를 하고, 배밀이와 기어다니기가 가능해지면 양육자를 향하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향해 이동하며 놀이하기를 즐깁니다. 붙잡고 서거나 걸을 수 있게 되면 끊임없이 넘어지면서도 다시 붙잡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영아의 신체 운동을 활용한 놀이에 속합니다. 또한, 손으로 잡고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영아는 물건을 잡거나 던지는 놀이도 즐기게 됩니다.

기초 운동 능력이 0, 1세에 비해 능숙해진 2세는 간단한 신체 놀이인 공, 끈차, 봉봉차, 미끄럼틀 등을 사용하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2세 영아는 걷고 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 어려운 신체 동작, 장애물 건너가기 등의 놀이를 시도하게 됩니다.

신체 운동 놀이를 위한 교사 지원

- 각 영아의 신체 운동 발달 수준을 잘 관찰하여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운 동작을 시도하는 영아를 위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을 점검하고 위험하지 않은 놀이 방법으로 시도하도록 도와준다.
- 영아가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몸 놀이가 있다면 안전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흥미를 확장할 수 있는 적절한 놀이 기구나 놀이 방법을 안내한다.
- 신체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영아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신체 운동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거나, 조금 가까운 곳에 흥미로운 놀잇감을 두어 영아가 스스로 이동하거나 팔을 뻗는 행동을 해볼 수 있게 도와준다.
- 영아가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새로운 동작이나 자세를 시도하면 격려하여 몸을 이용하는 놀이에 더 집중하고 즐겁게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때론 교사가 모델링을 하여 영아가 움직임을 따라 하거나 음률에 맞추어 몸 움직이기 등의 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3) 역할·쌓기 놀이

12개월경이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행동을 모방하여 단순한 역할 놀이를 합니다. 18개월경에는 외부 지향적인 가작화가 가능해져서 영아 자신이 아니라 인형 아기가 모형 과일을 먹기, 인형 아기가 전화기로 전화하는 흉내 내기 역할 놀이가 가능합니다. 2세경에는 점차 복잡하고 세련된 가작화를 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사물을 대체하여 역할 놀이를 할 수 있고 엄마, 아빠 놀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친숙한 주제에 대한 역할 놀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아는 자신이 경험한 역할 모방하기(예: 엄마가 아기 돌보기 등)와 사물을 보며 연관되어 생각나는 행위 모방하기(예: 유모차를 보면 아기 인형을 태우고 밀어주기 등), 그리고 관계적 역할 모방하기(예: 엄마, 아빠, 아기 놀이)를 주로 합니다. 영아는 역할 놀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 영아 역할놀이의 발달

단순히 전화기를 귀에 댄다.
인형의 입에 젖병을 댄다.

(전-가작화) 유사한 가작과 활동에 참여하지만 가작화 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컵을 들어 입에 대고 마시는 소리를 낸다.

(자기-가작화) 명백한 가작화 활동에 참여하고 자기를 향하여 진행되는 명확한 가작화를 한다.

모형 젖병이나 컵으로 형에게 젖을 먹인다.
모형 트럭을 밀면서 자동차 소리를 낸다.

(타인-가작화) 자기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진행되는 가작화 행동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작화한다.

출처: Johnson, Christie, & Yawkey(2005) 재편집.



사물을 가지고 놀이하기를 즐기는 영아는 블록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12~18개월 영아는 블록으로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블록을 1개의 사물로 가지고 놀이합니다. 18~24개월 영아는 블록을 한 줄로 늘어놓고 단순한 탑 쌓기를 하거나 블록을 쌓아 놓은 후 무너뜨리는 놀이를 즐깁니다. 2세가 되면 블록으로 폐쇄 공간 만들기를 시도하면서 블록 놀이에 더 몰입합니다. 간단한 공간을 만든 후 공간 안과 밖을 구분하여 놀이할 수 있고, 자신이 경험했던 사물들을 상상해서 간단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으로 네모 공간을 만든 후 집이라 상상하며 집 안으로 등장인물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역할 놀이를 하기도 하고, 블록을 길게 늘어놓은 후 탈 것을 상상하면서 어린이집이나 마트에 가는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아는 블록 놀이와 역할 놀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즐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이 경험을 반복하면서 점차 실제 사물과 유사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며 표상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영아기에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역할 놀이와 블록 놀이는 이후 유아기의 정교하고 복잡한 놀이를 위한 기초 능력을 발달시키므로 충분히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영아 쌓기놀이의 발달

블록 이리저리 옮기기

영아에게 블록을 주면 블록을 들고 이리저리 옮기기만 하고 무엇을 만드는 놀이를 하기보다, 주로 탐색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블록을 옮기며 움직이는 것을 즐기는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의 재질은 가볍고 들기 쉬운 종이나 스펀지 등의 큰 것이 좋다.

블록 쌓고 늘어놓기

영아가 블록을 수평으로 늘어놓거나, 수직으로 쌓는 것을 반복한다. 블록 늘어놓기와 위로 쌓는 모습은 영아기에 가장 흔하게 관찰되고, 이어서 쌓은 블록을 손으로 밀거나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리 만들기

유아는 쌓기 놀이 경험이 축적되면서 좀 더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2개의 블록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운 후, 다른 블록을 위에 얹어서 다리 모양을 만든다. 다리를 만들어 보는 경험은 유아가 블록의 길이를 고려한 균형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된다.

울타리 만들기

연령이 많아지고 쌓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아는 블록으로 폐쇄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기존에 자신의 앞쪽에만 블록을 늘어놓는 놀이에서 나아가, 자신을 둘러 쌓을 수 있도록 블록으로 울타리 형태의 폐쇄 공간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처: Johnson. H(1933) 재편집.



역할 쌓기 놀이를 위한 교사 지원

-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을 놀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소품을 제공하여 물건을 보고 연상되는 역할 놀이를 스스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먹기, 잠자기, 유모차 타기, 생일 축하하기, 자동차 타기, 마트에 장 보러 가기, 병원 가기, 소풍 등 영아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을 중심으로 역할 놀이를 즐기도록 격려한다.
- 영아의 역할 및 쌓기 놀이에 적절히 개입하거나 영아의 모방 행동을 말로 묘사해 주면서 그 상황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 영아가 가작화 상황 속에서 다른 인물인 척 행동하고 그 사람처럼 말하면서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경험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가작화 상황에서 고맙다고 말하기, 부탁하기, 순서 기다리기,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등 상황에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안내하여 영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 블록 놀이를 즐기는 2세들을 위해서 블록 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제공하여 블록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또한, 영아가 구조물을 만들면서 공간, 방향, 블록의 많고 적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언어로 격려한다.
- 종이 블록 외 우레탄 블록, 스펀지 블록, 와플 블록, 끼우기 블록 등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블록을 제공하여 각 블록의 특성을 탐색하고 블록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물 만들기를 시도할 기회를 제공한다.
- 영아가 만든 구조물을 소중히 다루며 영아 스스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4) 말놀이



아주 어린 영아 시기부터 상대방에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으며 주고받는 말놀이를 즐깁니다. 1~2개 단어로 말할 수 있게 된 영아는 사물의 이름 말하기, 리듬에 따라 말하기, 의성어와 의태어로 말하기 등을 즐기며 점차 많은 단어와 문장들로 말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따라서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단어 및 문법 등의 발달을 토대로 한 영아의 말놀이를 지원하는 것은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영아는 성인의 주입식으로 말하기와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영아가 즐기는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말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며 발달합니다.

말놀이를 위한 교사 지원

- 영아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영아는 무엇인가를 표현하려는 몸짓, 표정, 말소리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배운다.
- 말놀이를 즐기는 방법은 상대의 말과 소리를 잘 듣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영아가 주고받는 식의 말놀이를 즐기는 것은 상대의 말과 의도를 집중해서 듣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는 다양한 기술을 학습할 중요한 기회이다.
- 영아가 보고 있는 사물,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말로 표현해 줌으로써 영아의 관심과 흥미, 영아의 경험이 말로 표현되는 과정을 즐기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영아는 다양한 단어와 표현, 상황에 적절한 표현 등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 등을 표현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 영아기는 혼잣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언어화하는 놀이를 즐기는 시기이므로 영아의 혼잣말에 교사가 적절히 반응하여 사회적 언어로 확장해 준다.
- 연령에 적합한 그림책, 그림 자료, 끼적거리기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한다. 사물 이름 알기를 즐기는 0~1세 영아, 각 상황에 대해 말하기를 즐기며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 보기를 즐기는 2세 영아, 교사처럼 글쓰기 흉내 내기를 즐기는 영아의 문해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 구성은 영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언어발달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영아는 그림책 보기를 좋아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반복하여 읽어 달라는 요구가 많으므로 새로운 그림책에 관심을 돌릴 때까지 충분히 반복해서 읽어준다.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4. 영아 놀이의 특성



‘아이들이 자신과 세상을 배움에 있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며 이런 방법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 David Elkind(2008)

성인의 관점으로 영아의 하루를 관찰해보면 많은 시간 놀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아는 어떨 때는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노는 것이 아니고 지루한 행동이나 일상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는 유사한 행동에 대해 ‘놀이’와 ‘놀이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생각할까요? 놀이는 놀이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때 진정한 의미의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아의 놀이는 일반적인 놀이의 특성에 영아의 발달적 특성이 추가되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놀이는 노는 사람이 정하는 자발성과 재미를 추구하며 나타나는 즐거움,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규칙을 융통성 있게 변화할 수 있고 놀이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주도성이 전제됩니다. 여기에 영아가 가지는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반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영아기 놀이의 가장 큰 특성에 해당합니다. 영아는 우연히 발견한 재미를 즐기 위해 그 재미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놀이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반복놀이’라는 명명 외에 기능놀이, 연습놀이, 감각운동놀이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와 같은 영아의 놀이 특성은 끊임없는 반복적 연습을 통해 숙달의 경험으로 이어져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한편, 영아의 놀이에서 지속해서 이어지는 움직임의 특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영아는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큰 신체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고, 그 변화의 과정은 놀이 속 움직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나타나는 대·소근육의 활발한 움직임은 영아의 신체 기능을 유능하게 발달시키고 자신감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외 영아 놀이의 특성으로 일상생활과 놀이 간 상호 호환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가 만들어지고, 놀면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즉, 영아의 놀이는 놀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공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영아기의 일상생활 경험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므로, 그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과정에 자연스러운 놀이가 함께 어우러져 일상이 놀이처럼 자발적이고 즐거우며, 영아 주도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다

영아놀이

놀이에서 찾아
라



Ⅱ. 표준보육과정 이해



1. 0, 1세 놀이	20
2. 2세 놀이	22

II. 표준보육과정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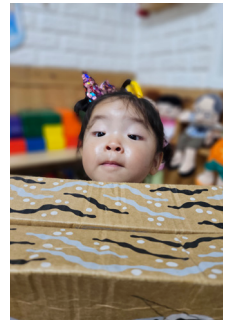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경험해야 할 내용을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0). 다음은 6개 각 영역의 내용범주, 내용(영아의 경험), 그리고 각각의 내용이 실천되기 위해 교사가 놀이 지원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1. 0, 1세 놀이

영역	내용범주	내용(영아의 경험)	교사 지원의 주안점
기본 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배변의사를 표현한다. 	영아의 개별적 발달차를 고려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린이집 일과에 즐겁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호기심과 시도를 지원할 환경을 준비하며 위험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체 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 신체를 탐색한다.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오감으로 감각적 자극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가 몸을 움직일 때 움직임과 신체의 명칭에 대해 언어로 표현한다.
	신체운동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영아가 대·소근육을 움직여 기본 운동을 시도할 때 움직임을 언어 비언어로 격려하고, 영아가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날씨와 놀잇감을 점검한다.
의사 소통	듣기와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영아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 표현을 존중하고 반응함으로써 영아가 즐겁게 소통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영아가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지도록 영아 눈높이에 친근한 그림, 사진 등을 게시하고 영아가 끼적이기에 관심을 보일 때 격려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에 관심을 가진다. •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영아에게 적합한 다양한 감각책을 준비하고 영아가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한다.

영역	내용범주	내용(영아의 경험)	교사 지원의 주안점
사회 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인식한다. •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영아가 욕구와 감정을 드러낼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에서 친숙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언어 및 비언어로 격려함으로써 나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영아가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따뜻한 스킴십과 눈맞춤을 하고 또래에게 관심을 보일 때 격려하며 반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예술 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영아가 자연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을 언어로 표현하고, 주변 환경의 소리, 색, 모양 등에 관심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 모방 행동을 즐긴다. 	영아가 친근한 소리와 리듬, 노래, 감각적 미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사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방을 시도할 때 언어적으로 즐겁게 반응한다.
자연 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사물과 자연에 대해 함께 집중하면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격려하고 영아의 탐색을 지지한다.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을 경험한다. 	영아가 친숙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도록 격려하고, 주변의 다양한 공간과 모양을 탐색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며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규칙성을 말로 표현한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영아가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보일 때 민감하게 상호작용하고 바깥 놀이나 산책을 통해 날씨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2. 2세 놀이

영역	내용범주	내용(영아의 경험)	교사 지원의 주안점
기본 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 본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영아가 하루일과 중 스스로 해 볼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특히 간식이나 점심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하며 배변 습관을 격려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해해 본다.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고 위험하다는 말과 물건, 장소 등에 대해 안전하게 행동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신체 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 능력을 활용한다.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영아가 감각으로 여러 가지 자극을 느끼거나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할 때 언어적으로 격려한다.
	신체활동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즐긴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영아가 대·소근육을 이용해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낼 때 격려하고 기본 운동을 시도하고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의사 소통	듣기와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영아가 교사나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도록 영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또 영아가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영아가 친숙한 그림과 환경 인쇄물에 관심을 가지고 끼적이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영아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며 상상의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말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한다.
사회 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수용하고 상호작용하며,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거나 자발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영아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즐거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한다. 또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간단한 규칙을 지킬 때 격려한다.

영역	내용범주	내용(영아의 경험)	교사 지원의 주안점
예술 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영아가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본다. •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영아가 일상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한 미술 재료와 역할놀이 소품을 준비하여 자신만의 표현을 격려한다.
자연 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영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사물과 자연을 반복해서 탐색할 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한다.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물질의 특성과 변화를 오감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 영아가 수량, 공간, 모양, 패턴, 친숙한 사물들의 다름에 관심,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질 때 그 내용을 언어화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영아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물과 날씨에 관심을 가지도록 상호작용하고 감각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격려한다.



배우고
다

영아놀이

놀이에서 찾아
라



Ⅲ. 교사의 놀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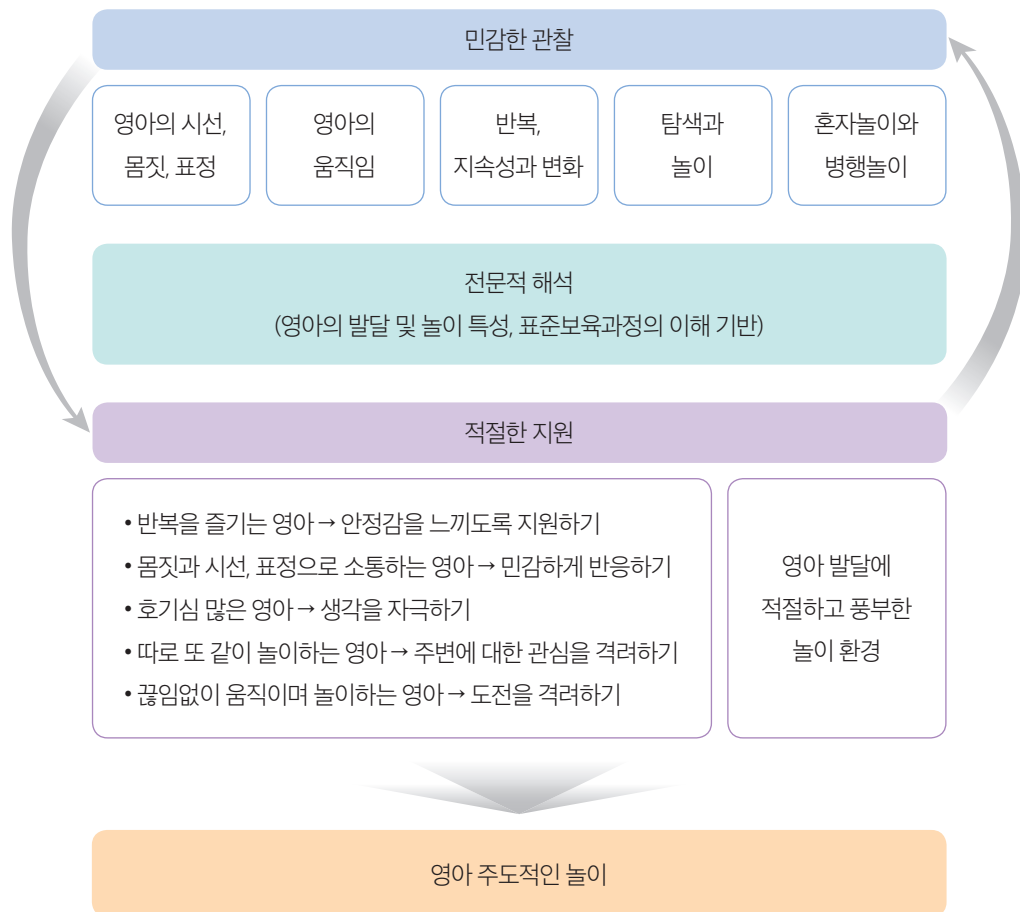


1. 민감한 관찰	26
2. 관찰에 근거한 놀이 지원	35
3. 영아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 지원	36
4. 놀이 지원의 현장 사례	70

Ⅲ. 교사의 놀이 지원



영아를 위한 전문성 있는 교사의 놀이 지원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교사는 우선 민감한 관찰을 통해 영아의 요구와 흥미를 파악하고, 영아의 발달과 놀이 특성, 표준보육과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놀이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풍부하고 적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며 놀이를 지원하고, 지원에 따른 영아의 반응을 다시 민감하게 관찰함으로써 놀이 지원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이 지원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감한 관찰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감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관찰을 통해 영아의 의도와 수준, 흥미 등 지원의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이 관찰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개별 영아 하나하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영아들에게 어떤 놀이를 하는지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반은 **놀이하고 놀아요”라고 답변을 하곤 하는데, 실제 놀이 모습을 관찰하면, 모든 영아들은 각자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는 하나의 놀이로 개별 영아의 놀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아의 놀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빠른 속도로 전환됩니다. 또한 놀이 중 수많은 갈등과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영아의 개별 놀이를 관찰하는 것이 자칫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아의 발달과 놀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무엇을 볼 것인가?

우선, 놀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놀이 중 발견해야 하는 “의미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정보란 영아의 놀이 의도와 수준 등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뜻하며, 다음의 내용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영아의 시선, 몸짓, 표정

영아기는 언어표현이 점차 발달해 가며 다양한 비언어를 사용하여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에 교사는 영아의 의도와 흥미를 파악하기 위해 시선, 몸짓, 표정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시선은 영아들이 아주 어린 시기부터 세상을 이해하고 요구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영아의 시선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함
- 애착 형성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의 기반이 됨
- 필요와 요구를 전달함(흥미, 호기심, 관심의 요청)
- 공동주의를 유발하여 언어발달과 배움의 기초가 됨
- 정서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함

따라서 영아가 무엇을 보는지, 얼마나 자주 보는지, 얼마나 오래 응시하는지 등을 살펴보면 영아의 의도와 관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대상에 관심이 있으며, 빈도가 높고 오래 살필수록 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구니를 응시하는 영아



우유를 먹이지만, 친구놀이를 열심히 관찰하는 영아

다음으로 영아의 몸짓은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지시적 몸짓 : 뽀기, 가리키기 등 원하는 것을 얻거나 주의를 끌기 위한 몸짓
- 관습적 몸짓 : 손 흔들기(인사), 끄덕이기(긍정) 등 사회적으로 약속된 몸짓
- 표상적 몸짓 : 먹는 시늉하기, 전화하는 흉내 내기 등 상징적인 몸짓

몸짓을 통해 영아들은 자신의 요구와 흥미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발하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징놀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아의 몸짓을 잘 관찰하면 어떠한 의도로 놀이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아의 표정은 현재의 정서 상태, 놀이에 대한 집중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아가 현재 놀이에 몰입하고 있는지, 즐거운지 혹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등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의 음식을 향해 손을 뻗는 영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친구에게 보여주는 영아

▶ 영아의 움직임

영아기는 누워 있던 영아가 생후 1년쯤부터 걷고 뛰어다니는 등 신체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영아가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놀이기 때문에 영아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움직임에 대한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다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운동능력 발달 : 영아는 기어가기, 걷기, 점프하기와 같은 대근육 발달 및 물체 잡기 같은 소근육 발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움직임을 통해 운동 능력의 발달을 이룬다. 놀이 중 영아의 움직임을 통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운동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 감각탐색 : 움직임을 감각을 통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영아는 다양한 질감을 만지거나 새로운 소리를 듣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보며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감각 정보를 수집한다. 영아가 어떠한 것에 다가가고 탐색하는지 살펴본다.
- 감정 표현 : 움직임은 영아들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수단이 된다. 영아는 즐거움부터 속상함 등 다양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므로, 놀이 중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자신감의 형성 : 장난감에 손을 뻗거나 첫걸음을 내딛는 등 움직임의 작은 성취를 통해 영아는 성취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게 된다. 놀이 중 영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현재 도전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당기고 끌기가 즐거운 영아



높거나 구르기를 반복하는 영아



나뭇잎을 담고 보고 쏟고 반복놀이를 하는 영아

▶ 반복, 지속성과 변화

영아기는 주변의 다양한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활발히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탐색이나 놀이의 대상이 계속 변화하며 이동합니다. 그러나 영아가 하나의 놀이 행동이나 놀잇감 등에 관심을 크게 갖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쌓고 무너뜨리기, 담고 쏟기, 먹는 시늉하기 등 재미를 느끼는 놀이를 반복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놀이 중 나타나는 영아의 반복된 행동, 지속성을 관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행동의 습득 : 블록 쌓기, 구멍에 도형 맞추기, 일상적인 행동 모방하기 등을 반복하며 영아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지고 정교해진다.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면 현재 습득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
- 숙달감 및 통제력의 형성 : 영아는 자신이 익숙한 놀이를 반복적으로 지속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편안함, 숙달감 등을 느끼게 된다. 또한 능숙하게 놀잇감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처럼 다소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반복놀이는 영아의 기술과 인지, 정서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들의 놀이를 관찰할 때, 어떠한 놀이 행동을 지속하는지, 의미 있는 변화의 순간이 나타나는지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통 블록 쌓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는 영아

▶ 탐색과 놀이

영아는 주변의 새로운 사물과 놀잇감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놀이합니다. 탐색과 놀이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는 촉각, 미각, 시각 등의 감각을 사용하여 탐색을 통해 주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알록달록한 질감의 놀잇감을 만지거나 입에 넣어 감각적으로 이해하려 하다가 해당 놀잇감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놀잇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즐거움을 느끼며 놀이하게 됩니다. (예: 의도적으로 딸랑이를 흔들어 소리내기 등)

탐색과 놀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도와 목적:** 탐색의 주요 목표는 환경에 대한 감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만, 놀이에는 즐거움, 실험 등을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포함된다.
- **행동의 복잡성:** 탐색은 손 뻗기, 만지기, 관찰하기와 같은 간단한 행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놀이는 의도적이고 다양한 행동을 포함한다.
- **감각에 집중하기:** 탐색은 주로 질감 느끼기, 색상 살펴보기, 맛 탐색하기 등 감각적 경험에 중점을 두지만, 놀이의 경우 감각적 요소와 함께 사물이나 놀잇감에 대한 보다 상호작용적이고 목적이 있는 행동을 포함한다.

이처럼 영아에게 동일한 놀이감이 주어지더라도 탐색, 놀이와 같이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탐색과 놀이 중 어떠한 것을 지속하는지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나뭇잎을 탐색하는 영아



나뭇잎 모으기 놀이 중인 영아



물의 흔적을 탐색하는 영아들



어떤 자동차가 제일 빠를까?



자동차가 자동차를 업어도 비탈길에 계속 내려가네!



영아들은 차와 관련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차 장난감이 스스로 굴러가는 현상에 대해 흥미를 갖고 탐색합니다. 실외 놀이터 비탈길, 건물의 기둥, 경사로 비탈길에 굴리고 물리적 환경 차이에 따라 차의 움직임을 비교, 관찰하며 놀이 속 탐색과 새로운 놀이가 공존합니다.

▶ 혼자놀이와 병행놀이

영아는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탐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혼자서 놀이를 합니다. 그러나 점차 경험이 쌓이고 놀이가 진행되면서 옆에서 놀이하는 다른 영아들의 놀이에도 영향을 받게 되며 서서히 병행놀이가 시작됩니다. 영아들은 혼자놀이를 하는 동안 여러 놀잇감을 스스로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하며 조절력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연습 등을 시도합니다.

병행놀이를 하는 동안 영아 간 교류는 없지만, 다른 영아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인식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래의 놀이를 관찰하거나 모방하기도 하고, 주고받기 등의 간단한 사회적 경험을 가지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놀이를 관찰할 때 영아가 현재 혼자서 놀이에 몰입하고 시도하는지, 병행놀이를 하며 친구들과의 교류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기 돌보기 흉내 내는 놀이 중인 영아



각자 아기를 돌보며 병행놀이를 하는 영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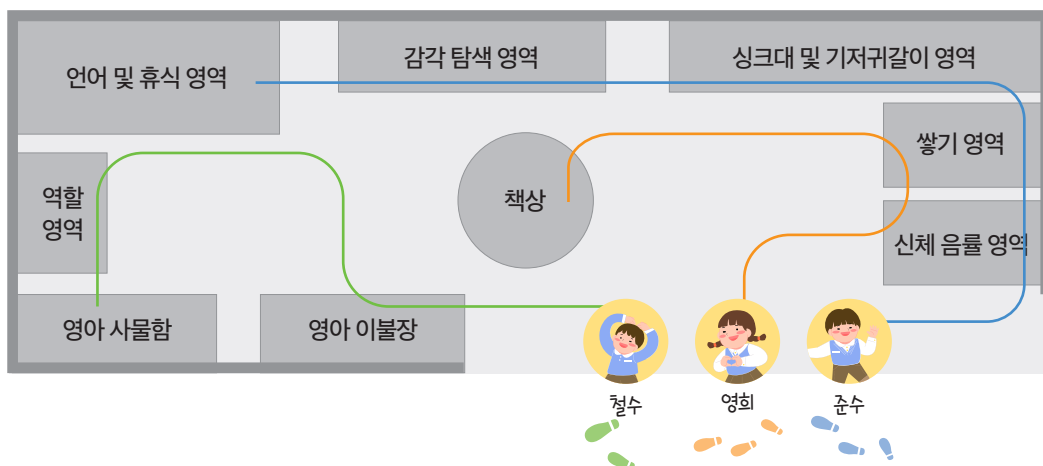
2) 어떻게 볼 것인가?: 놀이의 관찰 방법

▶ 계획을 세워서 보기

- 관찰에 용이한 환경
 -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하고 편안하며 방해요소가 없는 환경이어야 한다. 영아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놀이할 때, 가장 일상적인 놀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놀이 중 관찰을 계획하기
 - 분주한 일과 중에 관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놀이 중 잠시 눈을 들어 전체를 살피며 관찰하기, 영아가 놀이에 몰입하고 있을 때 틈틈이 관찰하기 등 우리 반의 상황에 적합한 관찰 방식을 계획한다.
- 관찰할 대상, 내용 정하기
 - 한 번에 모든 영아의 놀이를 보려고 하거나, 영아의 모든 놀이 행동을 보려고 하면 관찰과 기록, 활용 모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놀이 중 관찰해야 할 영아는 누구이며, 무엇을 볼 것인가(비언어, 탐색, 움직임, 반복, 병행놀이 등)를 정하여 잘 보이는 곳에 메모지를 붙여 표시해 둔다.

▶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기

- 틈틈이 메모하기
 - 그림이나 간단한 표시 등 나만의 기록 방법을 정해둔다.
- 동선 그리기
 - 영아의 움직임, 반복성과 지속성,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움직임을 동선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다.



- 영아의 다양한 놀이 흔적 남기기
 - 영아가 끼적인 흔적, 쌓아놓은 블록 모습 등 영아의 놀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 종이 등 다양한 것을 기록해 둔다.

영아가 끼적이기를 할 때



영아가 블록을 쌓을 때



- 끼적이는 모습 사진으로 남기기
 - 색연필을 쥐고 있는 손의 모습, 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끼적이기 한 종이 보관하기
 - 영아가 어떤 모양으로 끼적이는지, 손의 힘은 어떠하며 어떤 표현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영아가 블록을 쌓는 모습이나 결과물 사진으로 남기기
 - 현재 영아가 블록놀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음

2. 관찰에 근거한 놀이 지원

1) 놀이 지원의 기본 원칙

교사의 놀이 지원은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교사는 영아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준으로 놀이 지원의 필요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지원의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놀이 지원의 필요 정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Johnson, Christie, & Yawkey(2005) 재편집.

2) 놀이 지원의 유형

- 직접적 지원
 - 교사가 놀이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아의 놀이 파트너가 되고, 놀이의 모델링을 보여주거나 에피소드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간접적 지원
 - 교사가 놀이 밖에서 머무르며, 놀잇감이나 소품 등을 제공하거나 놀이의 보조역할을 하는 등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관찰
 - 영아 곁에 머무르며 놀이에 주의를 기울이고(끄덕이기, 미소 등), 영아의 시선과 놀이에 대한 관심, 지속성과 움직임 등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영아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 지원

1) 반복을 즐기는 영아: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원하기

영아가 반복적인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교사는 영아가 안정감을 느끼며 반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아는 숙달감과 자신감이 생기며, 자신이 하는 놀이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교사가 다양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따뜻한 시선과 몸짓으로 격려하며 지켜보거나 영아와 동일한 방법의 놀이를 하며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아가 안정감을 느끼고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반복을 격려하는 안전한 환경 제공하기
 - 영아가 현재 반복하고 있는 놀이와 관련된 놀잇감을 충분히 비치하며, 안전한 공간을 지원해 준다.
- 인내심을 가지고 격려하기
 - 영아에게 계속해서 다른 놀이를 제안하지 않고, 충분히 만족할 동안 반복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함께 참여하기
 - 영아가 반복하고 있는 놀이에 참여하여 영아와 동일한 방법으로 놀이한다.
- 약간의 도전 제시하기
 - 영아가 충분히 반복을 지속한 후에는 약간의 도전이 될 만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점차 다양한 놀이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격려하기
 - 영아가 시도하는 반복 행동에 대해 끄덕이기, 미소, 웃어주기, 호응하는 언어 사용하기 등으로 격려하여 즐거움을 공유한다.

사례 ①

남남 아이스크림

놀이 상황

아이스크림 모형을 보고 영아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서 먹는 흉내를 내며 교사에게도 내민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시늉을 하고 있구나. 이번엔 나에게도 주네....’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영아가 내민 아이스크림 모형을 교사가 먹는 시늉을 하자, 영아는 미소 지으며 또래에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또 다른 아이스크림 모형을 가져와 또래와 교사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고 먹기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교사가 남남 먹는 흉내를 내니 미소를 짓는다. 영아는 또래가 자기 앞에 아이스크림 모형을 내밀자, ‘남’ 하며 먹는 흉내 내기를 반복한다.



영아의 경험

- 아이스크림 모형을 보고 일상의 경험과 연상되는 것을 놀이로 표현하였다.
- 아이스크림을 상대방에게 먹도록 건네주거나 스스로 먹는 가작화 행동을 반복하며 즐겼다.
- 자발적으로 시작한 놀이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반복하였다.



이러한 반복이 지속되며 영아는 자신이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행동에 점차 숙달감을 얻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나아가 자신감의 토대가 된다.

교사의 지원

영아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놀이 행동을 충분히 반복하도록 수용하며, 교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반응을 되풀이해 주는 놀이 상대가 되었다.

1세 영아의 상상놀이는 일련의 사건의 흐름대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단순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교사가 알고 이에 맞춰 놀이를 지원하였다.

- 예: 의사놀이 - 청진기로 진료하는 행동의 반복, 주사 놓는 행동의 반복, 밥 먹는 놀이 - 숟가락으로 떠먹는 행동의 반복, 아기 돌보기 놀이 - 유모차 태워서 밀고 다니기 반복 등)

[상호작용]

- 영아가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놀이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교사 역시 즐겁게 반복적으로 반응해 주며 놀이상대가 되어주었다.
- 교사뿐 아니라 또래를 상대로도 놀이 행동이 서로 간에 일어나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다.
- 영아가 보이는 반복되는 놀이 행동에 대해 교사는 놀이 내용을 전환하려고 유도(예 : “이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어떻게 하지요?”)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를 두고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 여름이 되어 영아가 일상에서 아이스크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을 고려하여 영아 손에 쥐기 쉬운 아이스크림 모형 놀잇감을 동일한 것으로 여러 개 제공하였다.

사례 ②**이리 봐도 까꿍, 저리 봐도 까꿍****놀이 상황**

영아들은 낮잠 자기 전 매트 위에 엎드렸다가 뒤구르기도 하며 낮잠 잘 준비를 하였다. ○○가 매트 위에 앉아서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가 이불을 재빨리 치우며 교사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 짓는다.



‘이불로 일부러 가렸다 얼굴을 내밀며 즐거워하는 것이.... 까꿍놀이를 하고 싶구나!’

교사가 얼른 “까꿍!” 하며 영아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자, ○○는 까르르 웃으며 이불로 얼굴을 다시 가리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지켜보던 ◇◇도 옆으로 와서 함께 교사를 향해 이불로 얼굴을 가린다. 교사가 “까꿍” 하며 살짝 이불을 들추자, 그 소리에 맞춰 두 손으로 이불을 들춰내길 반복하였다.



자유놀이 중 다른 영아들도 보육실의 색스카프를 이용해 시야를 가린다. 이를 발견한 교사가 마주보며 “◇◇ 어디 갔지?” 하며 스카프를 치우고 얼굴을 보인다. “까꿍! ◇◇가 여기 있네!” 교사의 반응에 웃으며 잠시 뒤에 교사 앞에 와서 같은 놀이 행동을 반복한다.



◎◎는 비 내리는 것을 표현한 비닐 끈 더미 건너편의 또래를 유심히 보고 있다. 또래가 비닐 빗속에서 헤쳐 나오자, 또래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발을 동동거리고 좋아하며 웃는다.



문이 있는 놀이기구에서 문 뒤에 숨어 교사를 기다린다. 이를 알아챈 교사가 “△△ 어디 갔지?” 하자, 얼굴을 빼꼼히 내민다. 교사의 “찾았다!” 하는 소리에 즐거워하며 또다시 같은 놀이 행동을 반복한다.



영아의 경험

- 영아들은 까꿍놀이가 생각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자유롭게 까꿍놀이를 즐겼다.
- 영아들은 이불, 스카프,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일상의 물건 등을 사용해서 까꿍놀이를 즐겼다.



영아들은 ‘내 눈앞에 없어도 실제로는 사라진 게 아니야’라는 대상영속성 개념이 형성되어 가면서 자신의 가설(‘잠깐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야, 있을 거야!’)을 확고히 해주는 까꿍놀이를 무한 반복적으로 즐긴다. 영아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을 자기 것으로 익혀가고 숙달시켜 나간다. 이 과정을 통해 영아는 세상을 알아가고 발달해 간다.

교사의 지원

영아기는 단순한 놀이 행동을 오랜 기간을 두고 반복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영아가 즐기는 놀이 행동(예: 까꿍놀이)이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호작용]

- 교사는 일과 중 영아가 까꿍놀이가 연상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채고, 까꿍놀이의 상대가 되어 즐기며 반응해 주었다.

[시간]

- 자유놀이 시간뿐 아니라, 낮잠 준비 과정에서도 영아가 자발적으로 놀이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낮잠 준비를 재촉하지 않고 놀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반응하였다.

[자료]

- 까꿍놀이를 위해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 영아의 이불, 스카프, 영아의 몸이 가려지는 커다란 놀이자료 등 영아가 시야를 가린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까꿍놀이를 시도한 사물을 이용해 놀이가 이루어졌다.

2) 몸짓과 시선, 표정으로 소통하는 영아: 민감하게 반응하기

영아가 놀이 중 보이는 비언어적 소통 시도(몸짓, 시선, 표정)를 민감히 관찰하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아의 의도에 부합하는 놀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관찰하고 경청하기

- 영아가 주는 단서와 관심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영아가 어떠한 유형의 몸짓을 하는지, 어떠한 소리를 내는지를 관찰하며 무엇을 좋아하고 어려워하는지 파악한다.

- 마음 읽어주기

- 영아의 움직임이나 시선, 표정 등을 보고 영아의 마음을 읽어준다.

- 영아의 주도 따르기

- 영아의 소통 시도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놀잇감을 건네주거나 도움 주기 등 영아의 주도에 따라 반응한다.

- 병행놀이로 참여하기

- 병행놀이는 영아의 놀이 주도성을 존중하고 의도를 관찰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특별한 도움 요구가 없을 때, 교사는 병행놀이를 하며 친밀감을 공유한다.

- 지나친 개입이나 질문 삼가기

- 영아에게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몰입하고 있는 영아에게 “무엇을 하는 거야?” 등의 질문은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 표현을 격려하기

- 영아가 끼적이거나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의사 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사례 ①

그림책으로 소통해요

놀이 상황

영아는 이전에 함께 봤던 그림책을 교사에게 또 읽어달라며 가지고 왔다. 책을 보기 위해 앉았는데 영아는 책 겉장의 그림을 보더니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를 교사에게 내민다.



‘○○는 책을 글자 그대로 읽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네.
지금 이 책의 그림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구나...’
“○○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랑이 책 속의 자동차랑 똑같네!”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영아는 책 속의 글 내용보다 이미 봐서 익숙해진 그림을 보고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몸짓이나 단어,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보인다.

교사: ○○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랑이 책 속의 자동차랑 똑같네 반가워!

영아: (우유 그림을 보더니, 먹는 시늉을 냄)

교사: ○○는 우유를 꿀꺽꿀꺽꿀꺽



영아의 경험

- 교사가 들려주는 책 내용을 일방적으로 듣기보다 책장을 넘기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그림에 대해 경험이나 느낌을 몸짓이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교사가 민감하게 알아채고 반응해 주어서 상대와 주고받는 소통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몸짓, 표정 등) - 교사의 반응 - 교사의 질문 - 영아의 반응과 같은 패턴을 경험하면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차례말기(turn taking)를 자연스럽게 경험하여 익숙해지게 된다.

교사의 지원

영아가 그림책을 함께 보자는 요구에 교사는 책의 내용대로 읽어주기보다, 영아가 그림책의 무엇에 관심 있는지 영아의 시선과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살펴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내는 데에 집중하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상호작용]

- 영아가 책 표지의 그림을 보며 손에 있는 자동차를 교사에게 내밀거나 그림을 보고 표현하는 몸짓의 의도를 파악하여 언어로 표현해 주었다.
- 영아가 그림책 속 그림을 가리키며 한 단어로 명명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여 영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결한 문장으로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영아의 언어 표현 증진을 도모하였다.
- 영아가 그림책 속 그림을 보고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 행동을 언어로 표현해 주며 영아의 의도를 반영해 주었다.

[공간]

- 영아와 그림책을 볼 때 서로 밀착하여 같은 방향으로 앉아 책을 보았다. 이는 영아가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안정적으로 그림책을 보면서 흥미 있는 것을 가리키거나,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하기 용이하다.
- 교사가 영아와 서로 마주 보는 대형으로 앉아 그림책을 보여줬다면, 교사는 그림이 안 보이기에 책의 그림 중 어디에 영아의 시선이 머무르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영아는 자신이 관심 있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책 속의 그림과 떨어져 있어 바로 가리키기 어렵다.

사례 ②

비 오는 날

놀이 상황

비가 자주 오는 여름날, 영아들은 비 오는 날 변화된 창밖 풍경에 한참 시선을 떼지 못하고 응시한다. 평소와 다른 실외 놀이터의 모습을 가리키며 나가자고 한다.



‘며칠째 창밖으로 비 오는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네.’ “계속 바깥놀이를 못 나갔는데 나가고 싶겠다!”

밖으로 나가 현관에서 처마 아래 돛자리를 깔고 비 오는 것을 느끼며 그림책을 보았다. 그러다 보니 영아는 마당을 가리키며 비가 와도 나가고 싶어 하였다.



“비가와요”
“앗, 차가워!”
“우산 썼어요!”

비 오는 날에도 실외를 산책하기 위해 영아의 우의나 우산을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가정에 협조 요청하였다.

영아들은 우산, 우비, 장화를 착용하고 빗속을 걸어보는 것을 신기해하며 비가 오는 날마다 이를 지속하였다.



이후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영아들은 실외놀이에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 하였다. 우산을 들고 이동하다가 우산에 가려 영아가 보이지 않아 교사가 이름을 불렀다. 영아는 우산을 치우고 가려진 얼굴을 내보이며, ‘까꿍놀이’가 연상되었는지 교사와 눈을 마주치며 웃기를 반복하며 즐겼다.

영아는 의도를 가지고 우산으로 자신을 가리고 교사가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교사 앞에 멈춰있었다.



‘우산으로 가리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좀 전혀럼 이름을 불러 달라는 것이겠지?!’ “○○아! ○○이 어디 갔지?”

영아는 빠르게 우산을 치우며 교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는다. 이것을 본 다른 영아들도 같이 흥미를 보이고 반복하며 즐겼다. 교사가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노래를 하자, 그에 맞춰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는 놀이가 흥미롭게 지속되었다.

영아의 경험

- ‘비가 오면 나갈 수 없다’였는데, 비가 와 색다르게 보이는 풍경에 관심을 갖게 되자,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책보기, 우비, 우산 이용해서 비 오는 날 실외 놀이터 둘러보기로 차츰 비 오는 날을 경험할 수 있었다.

- 비 오는 날 실외를 자유롭게 다니며 비 오는 날 평소와 다른 땅, 공기의 느낌, 빗방울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 느껴보았다.
- 우산으로 시야가 가려진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를 이용해 까꿍놀이를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교사를 상대로 반복하며 즐겼다.

교사의 지원

영아가 비 오는 날 변화된 풍경을 응시하며 지속해서 관심을 보이자, 교사는 이에 주목하여 영아들의 관심에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였다.

[상호작용]

- 영아가 비 오는 풍경을 한참 응시하거나 밖을 가리키는 등 관심이 계속되는 것을 관찰한 후, 영아가 비 오는 날 실외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실외놀이에서 영아가 우산을 이용해서 까꿍놀이를 주도하자, 그에 맞춰 영아를 이름을 불러주는 등 까꿍 놀이의 상대가 되어 주었다.

[자료]

- 비 오는 날에는 실외놀이를 나갈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에 협조를 구하여 영아의 우산과 우의 등을 준비하였다.

[공간]

- 비 오는 날은 실외놀이를 못 하는 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처마 밑에서 비 오는 것을 보며 비 오는 날의 풍경을 느껴보았다.
- 이후에는 우산과 우의를 갖추고 직접 실외 놀이터로 나가 빗속에서 다녀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안전]

- 우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영아들이기에 우산으로 시야가 가려진 채 다니지 않도록 살피고, 우산을 들고 다닐 때 영아 간의 간격을 유심히 살펴 조절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였다.

사례 ③

산책은 즐거워

놀이 상황

영아들이 열매와 여러 가지 색 낙엽이 떨어진 가을 숲길 산책을 하고 있다.



‘OO이는 뛰어가고 싶구나.’

앞서 뛰어가는 영아에게 교사도 함께 뛰어가 잡기놀이를 전환하였다.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 보세요



영아들이 산책길에서 발견한 열매들을 함께 탐색하며 모양, 색깔을 살펴보았다.

나뭇가지에 나뭇잎을 끼운 것을 들고 있는 또래를 보고 자신도 하고 싶은 표정을 짓는 영아에게 교사는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 주며 실제로 해 볼 수 있게 지원하였다.



영아의 경험

- 실외 바람을 쐬며 산책하는 경험을 하였다.
- 산책로에서 이동하며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해 보았다.
- 산책로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열매, 낙엽에 주의를 기울이며 탐색해 보았다.

교사의 지원

영아가 비 오는 날 변화된 풍경을 응시하며 지속해서 관심을 보이자, 교사는 이에 주목하여 영아들의 관심에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였다.

[상호작용]

- 교사는 영아가 앞서 뛰어가자 제지하지 않았다. 개방감 있는 실외에서 뛰고 싶은 영아의 욕구를 알아채고, 이를 수용하여 교사도 함께 뛰며 잡기놀이 상황으로 전환하였다.
- 한 영아가 뒤통뒤통 걷는 모습을 보여주자, 교사가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라하며 다른 영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도록 권유하였다.
- 한 영아가 나뭇가지에 여러 가지 색 나뭇잎을 끼운 것을 보고 다른 영아가 부러워하는 표정과 눈빛을 보이자, 교사는 “OO도 (낙엽을) 찾으러 가볼까?” 하며 영아의 마음을 읽고 지원해 주었다.
- 영아가 한 손에 나뭇가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나뭇잎을 나뭇가지에 끼우는 것은 어려우므로, 교사가 나뭇가지를 잡고 있고, 영아는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가져와 끼우도록 하였다.

- 두 영아가 동시에 교사에게 요구를 하자, “OO가 먼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줘”하며 두 영아 모두에게 교사가 원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아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나뭇가지에 나뭇잎을 끼우는 것이 이뤄졌을 때 교사는 “끝았다~~~!”하며 다정한 어감과 흡족한 표정으로 영아를 바라보며 영아의 성취를 함께 기뻐해 주었다.

[자료]

- 산책로의 나뭇잎, 나뭇가지도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자연물로 생각하고 영아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안전]

- 영아가 열매를 입에 넣지 않게 알려주었다.
- 나뭇가지를 놀이의 소재로 이용하되 위험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찰하며 주의를 기울였다.

3) 호기심 많은 영아: 생각을 자극하기

놀이 중 영아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합니다. 교사는 영아가 놀이 속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배움을 지원해야 합니다.

▶ 생각의 폭을 넓히는 상호작용

- 영아의 관심을 반영하여 풍부한 환경 제공하기
 - 영아의 관심의 변화 등을 관찰하고 반영하여 풍부한 놀잇감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반죽, 물, 모래, 자연물 등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 놀이와 실생활의 경험 연결하기, 정보 제공하기
 - 영아가 놀이 중 보이는 행동을 영아의 실제 생활 속 경험과 연결 지어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면, 영아가 실제 자동차를 타본 경험과 연결 지어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질 높은 피드백

- 비계 설정하기
 - 교사는 영아가 놀이 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힌트를 주거나 언어적,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생각의 과정을 촉진해 줄 수 있습니다. 블록을 쌓지만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될 때, 퍼즐을 맞추기 힘들어 어려움을 느낄 때, 교사는 “왜 자꾸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까” 등의 질문을 하거나, 퍼즐이나 블록의 방향을 돌려가며 해결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피드백하기
 - 교사는 영아가 하는 다양한 시도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놀이의 결과물보다는 영아가 시도하고 변화하는 모습에 집중하여 상호작용합니다.

사례 ①

색으로 놀아해요

놀이 상황

영아들은 실외놀이 벽면에 물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넓은 흰 벽에 물감으로 그려 색이 나타나니 그것만으로도 흥미로울 거야.

영아들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하지는 않아’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교사는 영아가 표현한 것을 보고 “저녁에 보는 노을 같아”라며 교사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영아가 자신이 남긴 흔적을 “수박이야”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교사는 “우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수박의 다른 모습을 표현하여 영아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왔다. 우연히 나타난 흔적에 대해 영아가 “뭐야?”라고 호기심을 갖자 “~~ 뭘까?” 하며 영아에게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영아가 그리는 과정에서 생각 난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흥미롭게 들어주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을 궁금해하며 영아의 표현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 영아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시켰다.

영아가 실수로 바닥에 물감을 쏟았을 때 그것으로 바닥에 흔적을 나타내며 “이것 봐, 바닥에도 그릴 수 있어”라고 바닥에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영아들도 벽에서 바닥으로 공간을 옮겨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아가 붓을 치켜들며 물감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자 “뚝뚝...”하며 영아가 보여주는 현상과 흔적에 함께 집중하였다.

영아의 경험

- 흰 벽면에 여러 가지 색 물감으로 자유롭게 표현함에 따라 일어나는 감각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 여러 가지 색과 색이 섞이는 것을 경험하였다.
- 자신의 흔적을 보고 명명하기도 하고 떠오르는 일상에서 경험을 교사에게 이야기하며, 교사의 질문을 통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 물감을 쏟아 그것으로 바닥에 그리며 벽과 바닥에 표현할 때의 차이를 경험하였다.

교사의 지원

영아가 물감으로 무엇을 그렸는지에 집중하기보다 영아가 표현한 것에 대해 교사의 느낌을 표현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가 자신의 결과물을 다시 보며 느끼거나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호작용]

- 영아의 흔적에 대해 “뭐 그린 거야?” 처럼 목표나 결과적인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교사의 느낌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영아도 자신의 흔적을 보고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 “뭘까?” “어떻게 되었어?”와 같은 반응으로 영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생각을 이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호작용 중 상황에 맞는 노래 구절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리듬 있는 말에 흥미를 느끼는 영아에게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 영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영아와 얼굴을 마주하며 상호작용을 나누었다.

[자료]

- 여러 가지 색 물감과 함께 영아가 사용하기 편한 굵고 짧은 붓을 제공하였다.

[공간]

- 주어진 넓은 벽면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였다.
- 물감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바닥에도 표현할 수 있게 벽에서 바닥으로 공간을 확장해 주었다.

사례 ②

그림책으로 놀이해요

놀이 상황

영아들이 그림책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늘어놓으며 ‘길’이라고 하고, 몇 권의 책을 세우고 연결하여 ‘집’이라고 하며, 책을 블록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지속해서 관찰되었다.



‘그림책을 계속 블록처럼 사용하네! 그럼 많이 필요하니 읽을 책 이외에 다른 그림책을 반에 많이 가져다 놓아야겠다.’

그림책을 많이 비치하여 영아들의 흥미에 따라 새로운 놀이가 발현되는 것을 돕고자 하였다.

친구 모습을 보던 영아가 책을 들고 와 그림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명이 들어갈 수 있게 세웠다. 이것을 보고 들어가고 싶은 영아들이 생겨났다.

규민: 아, 줘야.

교사: 규민이랑 하민이도 들어가고 싶구나. 좁아서 불편하지? 어떻게 할까?

규민: 하민아, 하민이도 만들어.

하민: (규민이를 보기만 한다)

규민: 내가 만들어 줄까?

하민: (손가락으로 규민이가 만든 곳을 가리킨다)

교사: 규민아, 하민이는 규민이가 만든 곳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가 봐.

규민: 그럼, 책 가져와야지.

교사: 책 가져오면 돼? 하민아, 책 가지고 올까?
규민아, 책 가지고 왔어. 어떻게 할까?

규민: 여기에 이렇게 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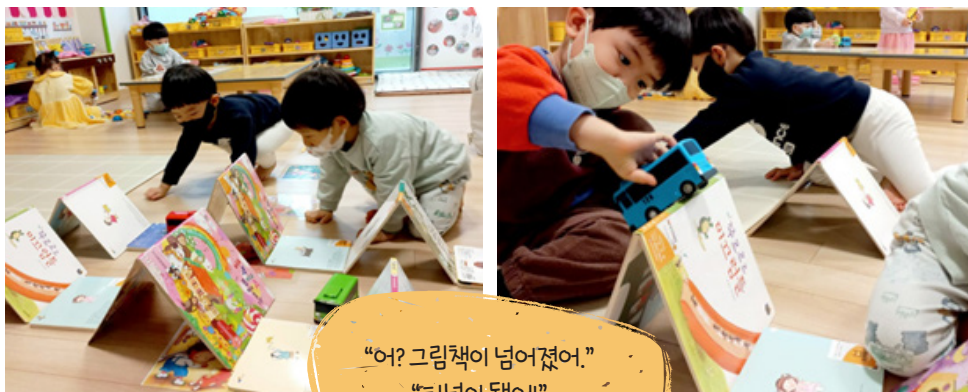
교사: 아 여기에 책을 하나씩 하나씩 더 놓으니까 점점 넓어진다.





책을 더 세워 영아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림책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그림책을 보았다.

그림책을 세워서 놀이하던 영아들은 우연히 쓰러진 그림책을 보고 “산이 됐네!”, “터널이야!”라고 하면서 세워진 그림책을 옆으로 눕히며 “산을 만들자! 터널을 만들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 그림책이 넘어졌어.”
“터널이 됐어!”
“산이야!”

자동차를 가지고 와 산을 넘고, 터널을 지나려 하니, 책이 바닥으로 납작해지며 산도 터널도 없어졌다. 영아들은 다시 책을 세우기를 반복하고 반복하였다. 그리고 터널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서로 이야기하며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림책 터널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던 한 영아가 벽돌 블록을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그림책을 걸쳐 올려놓으며, “터널이다!”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터널이 무너진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영아들이 한 명 두 명 모여 벽돌 블록에 그림책을 올려 터널을 만들고 차를 통과시키며 놀이를 하였다. 책상 위에서 교실 바닥으로 연결되면서 터널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터널놀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영아가 같은 방법으로 벽돌블록을 세우고 그림책을 벽돌 위에 올린 뒤, 손가락 인형을 놓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다른 영아들은 책을 쌓아 아기 인형의 침대를 만들어 주었다.

영아들은 놀이자료로 제공한 종이컵에 그림책을 올리며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림책 쌓기가 지속되며 영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책을 쌓아 올렸다. 그림책만 이용해서 쌓는 영아도 있고 종이컵과 그림책을 번갈아 가며 쌓는 영아도 있었다. 쌓기에 집중하던 영아들은 더 높이 쌓고 싶어 했으나 높이 쌓으려 할수록 이미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승규: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지?

지안: 블록을 더 높이 쌓고 싶은데.... 너무 높아.

교사: 높이 쌓고 싶은데 안 돼서 속상하구나.
손이 안 닿아서 힘들지.

지안: 우리 형은 잘해. 키 커서.

교사: 우리도 키가 더 커지면 좋겠다. 그치?

승규: (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키 커지지?

교사: 그러네, 승규가 커졌다.
그런데 상에 올라가는 건 위험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승규: 아이건?
(벽돌블록을 가져와 그 위에 올라가 보인다)



영아들은 블록을 발로 밟고 쌓아나갔다. 그러다가 더 높이 쌓기를 원하며 벽돌 블록을 2개, 3개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최대한 높이 쌓으려고 하였다.



주말을 보내고 와서 길게 연결된 병풍 그림책을 제시하였더니, 영아들은 그림책 속 그림보다는 아코디언 처럼 연결된 그림책의 형태에 더 집중하며 관심을 보였다. 머리에 올리며 긴 머리카락을 상상하기도 하고, 병풍 그림책을 빙 둘러 동그랗게 연결하고 종이 벽돌블록과 그림책으로 테이블을 만든 후, 여러 가지 음식모형을 놓고 “애들아! 밥 먹자!”를 외치기도 하였다.



병풍 그림책을 눕혀서 연결하니 처음 그림책으로 시도했던 산과 터널이 있는 도로가 완성되었다. 도로를 만들면서 병풍 그림책으로 만든 산 부분이 자꾸 내려앉았다.

희재: 자꾸 책이 내려가.

수민: 산도 없어지고, 터널도 없어져!

교사: 음... 그렇게. 속상하겠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떨 때 책이 내려가지?

수민: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교사: 차가 지나갈 때 내려가는구나! 왜 그러지?

수민: 자꾸 무너져.

교사: 자꾸 무너져... 여기 봐봐. 아래가 뚫렸어. 뚫린 쪽으로 산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지?

희재: 막아! 뚫린 거 막아!

영아들이 벽돌블록을 하나 가지고 와서 넣어 보고, 그래도 무너진다면 다시 하나를 더 넣었다. 그랬더니 세운 부분이 아래로 내려앉는 것이 조절되었다. 영아들은 그 위로 자동차를 움직이며 다시 놀이를 시작했다.



영아의 경험

- 그림책의 모양과 형태(사각형, 유사한 크기)에 대한 호기심, 그림책을 세워 놓을 수 있다는 발견에서 비롯되어 그림책으로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 공간을 구성(터널, 산, 집, 침대 등)하여 자신의 흥미에 따라 다양한 상상놀이를 즐겼다.
- 그림책을 이용하여 높게 쌓거나 공간을 구성할 때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경험을 갖고, 생각해 낸 방법을 적용하여 놀이하였다.

교사의 지원

- 영아에게 문학 매체로 그림책을 이용할 뿐 아니라, 그림책의 외양이 가진 형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을 기다리며 살펴보았다. 그림책 모양(사각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아의 의도에 따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호작용]

- ‘책은 보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아의 흥미에 맞춰 그림책으로 길, 터널, 침대, 높이 쌓기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아들이 구성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영아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단서를 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키가 크면 잘 할 수 있겠다, 지금 어떻게 하면 키가 커지니? 어떤 때 책이 내려가지? 왜 내려갈까? 아래가 뚫려있어, 어떻게 하지?”

[자료]

- 그림책으로 원하는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그림책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
- 놀이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해 볼 수 있도록 종이컵, 병풍책을 추가로 제공해 주었다.

[공간/안전]

- 영아들이 쌓고 무너뜨리기를 할 때와 여러 명이 한 공간에 들어가고자 할 때 놀이 중에 공간을 넓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 블록을 밟고 올라갈 때 블록을 좁게 놓고 밟거나 너무 높이 쌓지 않도록 영아에게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더 넓은 블록을 제공하여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관찰하였다.

사례 ③

개미와 구멍

놀이 상황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하던 중 일렬로 지나가는 개미의 움직임에 영아들이 관심을 갖고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는 영아들이 개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개미의 움직임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하며, 관심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개미가 기어가요!”
“개미가 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구멍 안으로 개미가 들어갔어요!”
“개미는 구멍 집에서 살아요?”
“우리는 집이 여기 있는데 개미는 왜 땅속 아래 있어요?”

“개미 껌껌하잖대!”
“어 여기에 구멍이 또 있어요.”



‘영아의 시선을 따라가 보고 영아의 말에 귀 기울여 보니, ‘개미’보다 개미가 드나드는 ‘구멍’에 흥미가 더 있구나...’
‘개미처럼 구멍에 들어갈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개미들이 구멍으로 들어가네?
나도 개미처럼 구멍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영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놀이로 전환 시켜주기 위해 훌라후프, 터널 등의 놀잇감을 제시하자 영아는 둥그런 공간을 통과하는 것을 즐겼다.



‘터널처럼 정형화된 신체활동 자료 외에도 개미가 구멍을 드나들 듯이 폐쇄 공간과 움직임의 함께 느끼며 놀이할 수 있는 매체는 뭐가 있을까?’

‘폐쇄적인 공간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흥미가 높은 영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커다란 박스에 구멍을 뚫어 제시해 보면 어떨까?’



"우와~ 구멍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집에 개미가 없어요!
아직 안왔나봐~"
"개미가 좋아하는 스티커도 붙여야제!"



"커다란 구멍이 있네.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선생님 까~꿍!"



"내 손이 나왔어요!"
"여기는 커서 엄마 개미도
나올 수 있어요!"



"아기 개미가 지금
배가 고플까 봐 내가
밥 가지고 올게요!"



"개미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가볼게요!"
"개미처럼 밖으로 나왔어요!"

실외 자유놀이 중 개미 외에도 나비, 무당벌레, 거미 등을 만나며 영아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구멍에서 다른 곤충들로 확장되었다. 주변에서 발견한 곤충들을 살펴보고, 그 움직임을 자유롭게 신체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영아의 경험

- 개미가 구멍에 드나드는 것을 관찰하고 구멍에 호기심을 가졌다.
- 개미처럼 동그란 곳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며 폐쇄 공간에서 구멍을 탐색하였다.
- 흙미가 있는 구멍이 있는 상자에 개미집을 꾸미고, 구멍 속이 집인 개미 가족이 되어 상상놀이를 하였다.
- 개미처럼 구멍을 드나드는 신체 움직임을 즐겼다.
- 개미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있는 곤충에 대한 관심은 이후 나비와 무당벌레, 거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몸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였다.

교사의 지원

영아가 개미를 발견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영아의 시선과 표현에 집중하여 개미보다 개미가 드나드는 '구멍'에 관심과 호기심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상호작용]

- 비언어적인 요소인 영아의 시선을 좇아 영아의 관심과 흥미를 민감하게 파악하였다.
- 구멍을 낸 큰 상자를 제시하며 영아에게 “개미구멍 같다. 개미처럼 해볼까?”와 같이 교사가 의도, 계획하는 것을 유도하지 않았다. 주어진 자료를 함께 살펴며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영아에게 놀이의 아이디어를 물었다.

[자료]

- 동그란 구멍을 연상하여 드나들 수 있는 터널과 훌라후프를 제공하였다.
- 개미구멍처럼 어둡고 폐쇄된 느낌이 더 들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영아의 몸이 드나들 수 있는 큰 상자에 구멍을 만들어 제시하여 영아의 호기심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공간/안전]

- 영아들이 터널, 후프 등 신체 움직임을 즐기는 놀이 중 기구 사용이나 움직일 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며 살펴보았다.
- 커다란 개미 상자를 사용하며 놀이할 때 영아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상자를 교사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떨어뜨려 배치하고 유심히 관찰하였다.

4) 따로 또 같이 놀이하는 영아: 혼자놀이 / 병행놀이 지원하기

영아기는 혼자놀이와 병행놀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교사는 영아의 혼자놀이와 병행놀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각 놀이에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놀이(개별놀이)

-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 충분한 개수의 동일한 놀잇감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 없이 영아가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발달과 수준에 적절한 놀잇감 제공하기
 - 영아가 교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놀잇감을 제공합니다.
- 영아의 선택 존중하기
 - 영아가 무엇으로 어떻게 놀이할지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존중합니다.

▶ 병행놀이

-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 충분한 개수의 동일한 놀잇감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 없이 영아가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긍정적 사회적 행동 보여주기
 - 놀잇감 건네주기, 도움주기 등 영아 수준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개별 영아의 놀이 존중하기
 - 병행놀이는 인접 공간에서 유사한 놀잇감을 가지고 진행되지만, 개별 영아마다 놀이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개별 영아의 놀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교사는 각 영아가 놀이 속에서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 개인 공간의 개념을 인정하고 안내하기
 - 영아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방해하지 않고 나란히 놀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선불리 영아 간 놀이를 연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사례 ①

운전도 하고, 세차도 하고

놀이 상황

3명의 영아들은 종이 벽돌블록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놀이를 하고 있다. 한울이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 한별, 민선이는 끼우기 블록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영상(QR코드)으로
확인해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 영아들이 서로 각자의 놀이를 하다가 놀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서로를 연결해 줘야겠다.’

교사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한울이와 상호작용 중 민선이에게 우리 차에 같이 타고 갈 것인지 묻는다. 민선이는 한울이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



한울: 눈이 많이와.
교사: 조심해서 운전해
한울: 눈이 구멍에도 들어갔어. 세차해야 돼.



교사: 여기 한별이가 만든 곳이
세차하는 곳이라. 여기서 세차할까?

자동차 놀이를 하던 한울이는 눈이 오는 날이라 차에 눈이 묻어 세차를 해야 한다고 했다. 뒤쪽에서 끼우기 블록으로 구성을 하던 한별이가 ‘여기가 세차장’이라고 하여 교사는 한울이에게 세차장이 있음을 알렸다. 영아들이 자동차를 세차하는 놀이를 함께 즐겼다.

영아의 경험

- 영아들은 한 놀이공간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운전하는 놀이, 끼우기 블록으로 구성하기 놀이를 즐겼다.
-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구가 하고 있는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경험을 하였다(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타기, 친구가 세차가 필요할 때 내가 만든 구성물과 공간을 세차장으로 제공하기 등).

교사의 지원

- 영아들의 놀이 단계가 혼자놀이, 병행놀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영아들 각각의 놀이를 그것에 맞게 지원하면서 동시에 한 공간에서 영아들이 서로 함께하거나 옆에서 같이 할 수 기회를 찾고 지원하였다.

[상호작용]

- 영아별로 자신이 흥미 있는 놀이를 할 수 있게 수용하며 각 영아와 상호작용하였다.
- 물리적으로 영아들끼리 가깝게 되었을 때, 영아의 놀이 상황을 안내하며 함께 할 것인지 제안하였다 (자동차 출발할 건데, 같이 탈래?).

- 영아가 함께 놀이하고자 하는 신호(세차를 해야 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여기가 세차장인데”)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상대 영아에게 전달하여 함께 놀이할 수 있게 하였다.
- 영아의 놀이 내용에 맞춰 상호작용하는 교사의 음성과 표정을 바꾸어(걱정스러운 목소리와 표정, 웃는 표정 등) 영아의 놀이에 몰입을 지원하였다.

[자료]

- 동일한 운전대, 수건 등을 여러 개 준비하여 영아들이 각자 놀이를 하거나 동일한 놀이를 할 때 놀잇감으로 인한 분쟁이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공간]

- 개별 영아가 하는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은 공간에서도 각 영아의 놀이 공간이 구분되면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②

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놀이 상황

천을 준비해 놓자, 천에 관심을 보이며 탐색하였다. 한 영아가 천을 ‘슈퍼맨’처럼 묶어달라고 요청하자, 다른 영아도 관심을 보이며 똑같이 해 달라고 하였다. 그대로 한참 다니더니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여 음악을 틀어주자 신나게 춤을 쳤다.



‘예상했던 것 보다 영아들이 천을 좋아하네! 더 많은 수를 준비해야겠다.’

다음 날, 더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천을 제공하자 영아들이 자발적으로 천에 관심을 보이며 탐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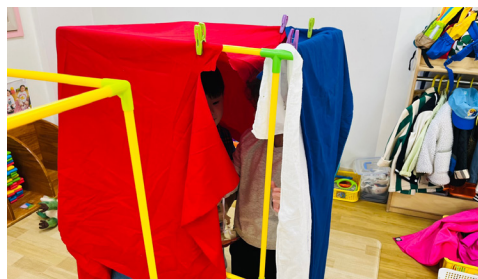
영아가 천을 깔고 앉아 엉덩이를 움직이자, 다른 영아도 친구의 모습을 모방하거나, 천을 깔고 그 위에서 책을 보거나 아기를 돌보는 놀이를 하였다.



교사와 까꿍놀이도 하고, 천 속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책을 보거나 아기를 돌보는 놀이를 하였다.



다음날 놀이집을 천으로 덮기 위하여 교사가 일부 도움을 주자 천으로 만든 공간 안에 또래와 함께 들어가 즐거워하였다. 한 영아가 늑대 흉내를 내어 교사가 “무서운 늑대다~” 라며 안에 숨자, 다른 영아들도 관심을 보이며 천으로 구성한 집 안에 숨어 상상놀이를 하였다.



천을 이용하여 썰매타기 놀이를 하는 영아가 있어 썰매타기에 흥미를 보이는 일부 영아들은 한 명의 교사와 함께 유희실로 이동하여 신체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천을 이용하여 썰매놀이, 천 잡고 달리기 등 신체놀이를 즐겼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새로운 놀이감인 천을 탐색하고, 천을 이용한 놀이를 원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다.
-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모방하면서 또래와 함께 놀이하였다.
- 천을 이용한 신체놀이를 통해 또래와 함께하는 신체놀이를 즐겼다.

교사의 지원

[상호작용]

- 영아의 놀이 행동을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격려해 주어 또래의 놀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영아들끼리 서로의 놀이에 관심을 보일 때는 바로 개입하지 않고, 또래의 놀이 모습을 관찰하였다.
- 교사와 놀이를 시도하는 영아들에게 놀이 상대가 되었다.

[자료]

-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천을 제공한 뒤, 예상보다 영아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더 많은 양의 천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시간]

- 영아들이 천을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공간/안전]

- 책상, 매트 위치를 조정하여 천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 천을 이용한 신체놀이에 관심을 보여 넓은 유희실에서도 천을 이용한 놀이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옮겨 진행하였다.
- 천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찰하며 지원해 주었다.

5)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아: 도전을 격려하기

영아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며 발달을 이루어 갑니다. 따라서 영아가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아의 도전을 격려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하며 도전적 환경 제공하기
 - 영아가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아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물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영아의 걸음 폭을 고려하여 블록이나 바구니의 크기, 높이 등을 검토하고, 쿠션이나 터널, 낮은 경사로 등을 활용하여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감각, 협응력, 공간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방적인 놀이 공간 마련하기
 - 영아들의 움직임을 격려하기 위하여 매트나 부드러운 표면이 있는 넓고 정돈된 공간을 준비합니다. 영아들이 마음껏 기어다니고, 구르며, 걷기를 반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합니다.
- 움직임을 지원하는 놀잇감, 환경 제공하기
 - 밀고 끌기, 타고 이동하기, 공 등 움직임을 유발하는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노래와 음악을 통하여 영아의 움직임을 격려합니다. 영아의 움직임과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속도를 결정합니다.
- 실외놀이, 물·모래 놀이 지원하기
 - 실외에서는 실내와 다른 유형의 움직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달리거나 점프하기, 오르내리기 등 다양한 움직임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며, 환경이 제한적인 경우 이동식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 ①**움직여요****놀이 상황**

0세 영아들이 기고, 서서 걸어보기 등 신체를 움직이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신체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영아들이 더 흥미롭게 기고 걷도록 지원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육실의 바닥에
사다리 모양으로
백업을 붙여주었다.
영아들은 처음에 낯설어하며
손으로 만져보고 눌러보는 등
탐색을 이어갔다.



사다리 모양에
익숙해졌을 때쯤 교사는
영아와 좀 떨어진 앞에
놀잇감을 두고 “OO의 끼우기 블록
가지러 갈까?” 하니
영아는 자연스럽게 사다리 위를
기었다. 처음에는 다르게 느껴지는
바닥 질감에 멈칫하더니 사다리
모양 안에서 기어가기를 반복했다.



걸을 수 있는 영아는 교사에게
손을 뺀거나 “어”라고 말하며
몸짓과 말소리로 도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잡아줄까?”

교사는 영아가 사다리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영아들은 고리를 끼우고 빼내는 놀이를 반복하였다.



‘영아들이 재미있어서 반복하는 놀이를 지속하되, 변화를 주어 새로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백업으로 다양한 크기의 고리를 만들어 제공하자
이것을 고리 끼우기 대에 끼우고 빼는 것을 즐겼다.



교사가 고리를 손과 발에 끼운 모습을 보이자, 영아들은 교사가 다리와 팔에 끼운 고리를 만져보았다. 관심을 보이는 영아의 손과 발에 고리를 끼워주니 자기 몸의 것을 만지면서 탐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는 스스로 손과 발에 고리를 더 많이 끼우고 뺐다가 다시 끼우기를 반복하였다.



영아들은 교사에게 고리를 보여주며 “어!”라고 하거나 몸짓으로 끼워달라는 표현을 하였다. 교사가 팔에 링을 끼워주자, 만져보거나 빼서 다른 곳에 끼우기를 시도하였다.

고리를 팔과 다리에 끼우고 빼는 것에 대한 흥미가 지속되었다.



‘영아들이 팔과 다리에 끼우던 링을 영아의 몸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변화를 주어 만들어 줄까?’

큰 고리를 만들어 제공하자, 영아들이 링 안에 들어가며 탐색이 이루어졌다. 스스로 링을 몸통에 통과 시켜 보기도 하고, 교사에게 “어! 어!”하며 고리를 가리키며 링을 더 끼워달라고 하여 도움을 받아 링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고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아들은 고리를 지지대 삼아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걸음마를 하기도 하였다.



익숙해진 영아들은 각자 고리를 몸에 끼우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안정적으로 놀이하였다.



‘여러 영아들이 각자 고리를 몸에 끼고 놀이하는데, 고리를 서로 연결해 기차놀이를 확장해 볼까?
영아들이 함께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0세는 아직 자기 몸을 능숙하게 움직이고 조절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그것은 안 되겠다.’

교사는 고민 끝에 연결된 고리에 영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영아의 고리와 교사의 고리를 함께 맞잡고 영아의 속도에 맞춰 같이 움직여 보았다.



영아의 경험

- 기기, 걸음마 하기, 걷기 등 움직이며 신체 운동기능을 연습하고 발달시키는 시기에 교사의 환경적 지원과 자료 지원으로,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느끼며 지속할 수 있다.
- 말소리나 몸짓으로 교사에게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하여 소통하는 경험을 하였다.

교사의 지원

영아가 기기, 걷기 등의 대근육 움직임과 끼우고 빼기 등의 소근육 움직임을 흥미 있어 하고 발달시키는 시기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흥미롭게 반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과 자료를 지원하였다.

[상호작용]

- 영아의 표정이나 몸짓, 말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말과 행동으로 반응해 주었다.

[자료]

- 바닥에 사다리 모양의 길을 붙여주어 흥미롭게 기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리를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 주어 빼고 끼우기, 몸에 끼우고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시간]

- 영아가 새로운 고리나 바닥의 사다리 모양을 충분히 탐색하고 자료의 모양 등의 특성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공간/안전]

- 영아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넓은 공간을 마련해주며 안전에 유의하였다.
- 영아가 몸에 끼고 걸음마를 하거나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항상 주시하며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까이 있었다.
- 영아의 신체 조절이 아직 능숙하지 않으므로 서로 연결되는 기차놀이는 시도하지 않았다.

사례 ②

상자로 놀아요

놀이 상황

영아는 촉감놀이 상자를 쌓아 올리는 것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상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하였다.



‘촉감놀이에 쓰는 상자인데.... 상자를 쌓는 것은 괜찮은데 넘어뜨리기까지 계속하는 것은 안 되겠는데, 영아들은 쌓고 무너뜨리는 것을 좋아하고..... 대체 할 것이 필요하네.’

교사는 다양한 크기, 모양의 통과 상자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영아들은 상자를 높게 쌓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하였다.

교사: “키만큼 높이 쌓았구나”



교사: “와르르 무너졌대!”



상자를 옆으로 늘어놓고 그 안쪽에 머물렀다. 블록 하나를 가리켜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였다.

교사: “○○이있는
여기가 어디일까?”

영아: “집! 여기 문이야!”



영아가 상자를 이용해 U자 형태로 구성하고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반복하며 ‘집’이라고 한다.



‘저렇게 막힌 느낌에서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꼭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준비해 줄까?’

교사는 영아가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상자를 준비해 주었다.



영아들은 상자마다 들어가 앉아 친구와 서로 얼굴을 보며 좋아하였다. 이 놀이를 계속하며 상자 위에 끼적이지기도 하고, 스티커를 제공하여 상자 꾸미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자를 '자동차'라고 하며 운전하는 상상놀이가 지속되자, 상자가 부족해졌다. 영아들이 자동차 놀이를 하여 상자에 바퀴를 꾸며 제공하자 영아들은 자동차 캐릭터 '타요'라고 하였다. 이후 교사가 '타요'의 얼굴까지 붙여주니 영아들은 상자 자동차 놀이에 흥미가 더 높아졌다. 바닥에 도로를 표시해놓자 영아들은 길을 따라 상자 자동차를 움직이고 싶어 하였다. 교사는 영아가 들어가 있는 상자를 밀거나 끌며 속도를 조절해 주고, 의성어, 의태어로 효과음을 내주었다.

교사: (상자를 밀며)
부릉부릉 출발

영아: (운전하는 시늉을 하며)
붕~



이후 상자가 더 필요하여 플라스틱 통에 끈을 연결하여 제공하였다. 영아가 움직이기를 원하면 교사가 끌어주었다. 영아들은 이 놀이를 즐기며 지속하였다. 자신이 통에 타지 않고 빈 통에 다른 놀잇감이나 인형을 넣어 끌고 다니는 놀이를 즐기기도 하였다. 이는 실외놀이에서 투명 페트병을 자동차 삼아 자연물을 넣고 끈을 잡고 끌고 다니는 놀이로 연결되었다.



영아의 경험

- 감각놀이 교구인 촉감상자 쌓는 것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교사가 준비해 준 다양한 상자들을 쌓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며 즐겼다.
- 상자를 울타리처럼 구성하여 자신의 공간을 표현하기도 하고, 몸이 들어가는 큰 상자에 들어가 아늑한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지속하였다.
- 큰 상자를 꾸미고 상자에 들어가 운전하는 흥내를 내며 자동차 놀이를 하고 교사가 끌어주었을 때 이동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 줄 달린 상자를 끌고 다니고, 실외에서도 연계하여 줄 달린 상자나 페트병을 끌고 다니는 놀이를 하였다.

교사의 지원

영아가 촉감놀이 상자와 블록을 계속해서 쌓고 무너뜨리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영아가 높이 쌓고 무너뜨리는 것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 이를 지원하였다. 연계되어 상자를 소재로 할 수 있는 놀이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상호작용]

- 교사가 먼저 놀이를 제안하지 않고 영아의 놀이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였다.
- 영아의 움직임을 교사가 언어로 표현해 주어 신체 움직임에 대해 격려하였다.
-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영아의 흥미를 돋우며 놀이 상대로 참여하였다.

[자료]

- 영아가 쌓을 수 있는 상자, 들어갈 수 있는 상자 등 다양한 상자를 점진적으로 제공하였다.
- 상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계속되자 상자를 꾸밀 수 있도록 크레용, 스티커를 함께 제공하였다. 또한 상자에 끈을 연결하여 끌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공간/안전]

- 영아들이 쌓고 무너뜨리기를 할 때, 상자를 끌고 다니거나 타고 다닐 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다.
- 바닥에 길을 표시하여 영아들은 길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다.
- 상자나 통을 끌고 다니는 것에 대한 흥미로 지속되는 놀이를 바깥놀이로 확장하였다.

4. 놀이 지원의 현장 사례

1) 블록 놀이 사례

블록을 만났어요

놀이 상황 ①

블록을 세우기를 반복한다. 블록이 넘어지자 다른 블록을 가져와 나란히 세운다.



‘쓰러지면 세우기를 반복하는
영아의 행동에 개입해야 할까?’



교사의 지원

- 교사는 영아가 블록 세우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관찰하여 기록하고,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영아가 편안하게 놀이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블록을 탐색하는 영아의 곁에서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하며 격려한다.

놀이 상황 ②

블록의 수를 늘리며 쌓고 나열하기를 반복한다. 점점 많은 양의 블록을 쌓아 올리며 미소를 짓는다.



‘블록을 다양한 모양으로 쌓고 있는 놀이에 함께 해야 할까?’

교사의 지원

- 블록놀이의 이점을 인식하고 지원한다.
- 영아의 반복놀이가 충분히 지속될 수 있도록 공간·시간적으로 배려한다.
- 영아가 만족감을 느끼는 표정에 고개 끄덕이기 등의 긍정적 반응을 한다.

친구를 바라봐요

놀이 상황 ①

친구가 블록을 길게 이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갖는데
함께 놀이 하도록 지원해야 할까?’



교사의 지원

- 친구가 블록을 나열하는 모습에 관심을 갖는 영아의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 영아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영아의 관심에 대해 공감해 주며 정서적 지원을 한다.

놀이 상황 ②

친구의 곁에서 함께 블록을 나열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블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관심을 보인다.



‘친구 곁에서 놀이하는
영아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의 지원

- 친구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블록의 양을 추가로 제공하여 영아가 친구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블록으로 공간 구성하기

놀이 상황 ①

쌓아 올리는 블록의 높이가 높아지며 공간이 구성된다. 블록과 블록 사이에 생긴 공간에 친구와 함께 앉아서 미소를 짓는다.



‘반복하던 블록놀이에서 이제는 구조물이 나오네.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놀이 상황 ②

블록으로 경계선을 구성하여 그 안에 앉아서 편안함을 느낀다. 여러 개 쌓아 올린 블록에 앉아 놀잇감을 조작한다.



‘혼자서 블록 공간을 구성하는 영아의 놀이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교사의 지원

- 나만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영아의 감정에 공감하며 정서적 지원을 한다.
- 영아의 흥미에 기반한 놀잇감을 가져와 블록 공간에서 놀이하는 과정을 격려한다.

물놀이, 무대 놀이공간으로 확장하기

놀이 상황 ①

물놀이 공간에 관심을 보이며 바다 그림 테두리를 따라 블록을 나열한다. 공간을 만들고 친구와 들어가 발장구치는 시늉을 한다.



‘공간을 구성하는 영아들의 경험과 놀이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을까?’



교사의 지원

-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통한 경험을 놀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놀이 중심 예상 계획을 수립한다.
- 이전 경험을 블록으로 표상하여 구성하는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정교화한다.
- 블록으로 구성한 공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작화의 모델링이 되어 놀이를 촉진한다.

놀이 상황 ②

블록을 쌓아 올리고 위에 올라서서 노래를 부르는 시늉을 한다.



‘블록 구성물로 역할놀이하는 영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교사의 지원

- 블록으로 만든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아의 모습을 정교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 블록을 쌓아 올라섰던 공간에서 생기는 문제 상황 해결을 지원하고, 다른 블록을 이용한 놀이 대안을 제시하며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공간에서 놀이로 또 다른 확장

놀이 상황 ①

블록으로 구성하여 그 위에 올라앉고 ‘부릉부릉’이라고 표현한다. 블록을 길게 나열하여 친구들과 함께 앉고 ‘치치포포’ 소리를 낸다.



‘블록으로 만든 구성물로 놀이하며 언어표현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



교사의 지원

- 영아가 표현하는 말소리에 관심을 갖고 반응하며 관찰을 통해 기록한다.
- 정확한 언어로 영아의 말을 이야기해 주며 언어적 축진을 돕는다.

놀이 상황 ②

네모 공간을 구성하고 그 안에 소품(자동차)을 넣어 블록으로 막는다. 구성물이 무너지자 블록을 다른 방법으로 세워 막는다.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의 목적을 표현한다.



‘영아가 만드는 구성물에 특별한 목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할까?’



교사의 지원

- 자동차 길 나열하기에서 확장된 구성물 놀이에 대해 표현하는 영아의 말소리를 정교한 언어로 이야기하며 축진한다.
- 블록과 다른 놀잇감의 연계 과정에서 필요한 소품을 지원하고, 격려한다.

경험을 놀이로 확장하기

놀이 상황 ①

바닥에 부착된 나뭇잎 길을 따라 블록을 나열한다. 친구와 함께 블록 길 사이 걷기를 반복한다.



‘바깥놀이와 연계하여 블록놀이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교사의 지원

- 영아의 이전 경험이 교실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놀이 중심 예상계획안을 기반으로 교실 환경을 제공한다.
- 돌담길의 놀이가 정교화될 수 있도록 이전 경험을 교사가 언어로 촉진한다.
- 교사가 블록 사이를 걷는 시늉을 하며 모델링을 보이고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놀이 상황 ②

블록으로 디귤자(ㄷ) 모양을 구성하고 그 위에 컵과 음식모형을 나열한다. 친구들이 다가오자 ‘주스’라고 표현하며 컵에 담긴 음식 모형을 건넨다.



‘블록놀이 속에서
역할을 표현하는 놀이 상황이 나타나네!’



교사의 지원

- 영아의 블록놀이에서 역할·상황 가작화의 모델링을 보인다.
- 영아가 구성한 공간에서 친구와 이루어지는 교류를 격려한다.
- 하반기 영아 발달 평가를 통해 영아의 일 년의 발달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블록과 다른 놀잇감의 연계 과정에서 필요한 소품을 지원하고, 격려한다.

2)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영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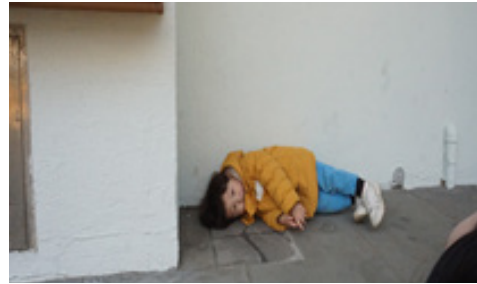
안하다

놀이 상황

바깥놀이 공간에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다. 교실에서도 놀잇감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까?’



교사의 지원

- 영아가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 세심한 관찰을 지속하고 기록한다.
- 신학기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부모면담을 통해 특이사항을 파악한다.
- 영아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 또래를 바라보도록 격려한다.

바라보다

놀이 상황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 구성물 만들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만든 구성물에 관심을 보인다.



‘친구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영아에게 직접적으로 놀이 지원을 해야 할까?’



교사의 지원

- 놀잇감, 또래, 선생님과 긍정적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놀이 속에서 지원하고 보육계획 평가에 반영한다.
- 친구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영아 곁에서 친구들의 놀이 모습을 언어로 표현해 주며 놀이에 대한 관심을 촉진한다.
- 놀잇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함께 감상하며 놀잇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류한다.

경험을 놀이로 확장하기

놀이 상황

블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혼자 블록으로 쌓기를 반복한다. 친구들이 없는 공간에서 친구들의 이전 놀이를 모방하며 놀잇감을 탐색한다.



‘혼자서만 놀이를 하네.. 친구들과 놀이하도록 도와주어야 할까?’

교사의 지원

-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혼자놀이의 이점과 놀이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한다.
- 혼자 있는 공간에서 놀이하는 영아의 안정감을 존중한다.
- 영아가 어떤 놀잇감에 관심을 두는지 지속해서 관찰한다.

관심 갖다

놀이 상황

친구가 하는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친구의 곁에 다가간다. 친구와 같은 놀잇감을 사용하고, 같은 공간에서 놀이 한다.



‘친구의 곁에서 영아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교사의 지원

- 곁에 있는 친구의 놀이에 관심을 갖도록 교사가 놀이 참여자가 된다.
- 함께 있는 공간에서의 놀이가 편안해지도록 감정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언어로 정서적 지원을 한다.

다가가다

놀이 상황 ①

친구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을 발로 차 무너뜨리기를 반복한다. 친구들이 영아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을 바라본다.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네...’

교사의 지원

-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영아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교사가 직접적으로 모델링 보이며 지원한다.
- 친구들의 감정을 인식해 볼 수 있도록 영아의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언어로 안내한다.

놀이 상황 ②

놀이하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 함께 놀이하기를 권유하는 의사 표현을 한다. 놀잇감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며 놀이한다.



‘친구들에게 점점 다가가 함께 놀이하려고 하는 영아를 격려해 주고 싶어.’



교사의 지원

- 교사는 영아가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 친구와의 교류 상황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과정을 격려한다.
- 교사는 놀이 참여자로 놀잇감을 공유하고 나누어 쓰는 모델링을 보인다.

함께 놀다

놀이 상황

놀이를 하며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한다. 친구들과 같은 놀잇감을 사용하며 더 많은 상호작용(감정, 이야기)을 주고받는다.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에서 즐거움을 지속해서 느꼈으면 좋겠어.’

교사의 지원

- 친구와 같이 놀이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서로의 교류를 언어로 표현해 주며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
- 영아가 사회적 유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놀이 속에서 촉진한다. 교사는 영아의 상반기 동안의 발달 과정을 기록하고, 하반기와 연계하는 지원내용을 계획한다.

3) 소리와 경사로 놀이 사례

‘소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

놀이 상황

자장가 소리에 맞춰 자는 흉내를 내는 놀이를 한다. 자장가가 끝나면 ‘꼬끼오’ 소리를 내며 일어난다.



‘소리 탐색의 즐거움을 느끼는 영아들에게 어떻게 더 매력적인 공간을 꾸며줄 수 있을까? 직접 영아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사의 지원

- 영아들이 소리에 흥미를 보이고, 놀이에 대해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에어캡과 같은 새로운 놀잇감 제공을 통해 놀이 확장을 유도한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영아

놀이 상황

에어캡을 이용한 소리를 다른 영아에게 들려준다. 안을 비춰보는 데 사용하던 원통 놀이를 통해 소리를 내고, 다른 영아에게도 소리를 들려준다.



‘다른 영아에게 즐거움을 공유하고 놀이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교사의 지원

- 영아가 하는 놀이에 대해 반응해 주며, 다른 영아들도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 반응과 지원을 제공한다.

소리를 찾는 새로운 놀이

놀이 상황

자동차, 경사로 그리고 차임벨을 활용해 경사로에서 차를 굴려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놀이를 한다.



‘소리를 내는 재밌는 놀이를
다른 영아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



교사의 지원

- 영아가 경사로에서 자동차를 굴려 소리를 내는 놀이를 벽에 붙여 영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소리를 내는 놀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과 더불어 영상을 같이 시청하며 놀이를 공유한다.

소리 놀이에서, 경사로 놀이로

놀이 상황

블록을 활용해 경사로를 만들고 자동차를 굴린다.



‘경사로와 굴리기를 활용해서
더 재밌는 놀이를 할 수는 없을까?’



교사의 지원

- 블록뿐만 아니라 박스, 우드락, 하드보드지 등을 비치해 이를 활용하여 경사로를 만들고 자동차나 물건 등을 굴려볼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조성한다.

놀이 확장을 위한 교사의 개입

놀이 상황

블록 두 개를 이용해 경사로를 만들려고 한다.
원하는 대로 경사도가 만들어지지 않자 영아가
운다.



‘놀고 싶은데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영아에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의 지원

- 직접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는, 교사가 직접 놀이 방향을 제안하여 놀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 블록을 더 가져와서 만들어 보면 어때? 두 개는 너무 조금이라 경사도가 안 만들어지나 봐!”

- 주변에 있는 영아 친구가 도와줄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아, 지금 □□이가 ○○처럼 만들고 싶은데 잘 안돼서 눈물이 나나 봐. ○○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영아



‘경사로를 더 튼튼하게 구성하려면 어떤 놀잇감이 필요할까? 다른 놀이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교사의 지원

- 영아들이 직접 조작하고 조절하여 블록을 고정할 수 있는 매체(마스킹테이프) 등을 제공한다.
- 블록을 눌러보며 흔들리는 부분을 찾고, 테이프를 활용해 고정해 가며 튼튼한 경사로를 만든다. 휴지심이나 테이프를 활용해 터널을 만들어 더 재미있는 경사로 놀이를 이어간다.

배우고
다

영아놀이

놀이에서 찾아
라



IV. 영아놀이, 이것이 궁금해요 ☆



1. 일과운영	84
2. 놀이공간	85
3. 놀이자료	87
4. 상호작용	89
5. 안전	91



IV. 영아놀이, 이것이 궁금해요

1. 일과운영

Q 하루일과를 운영하다 보면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일상생활과 놀이의 관계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놀이를 중심에 두고 하루일과를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아반 하루일과를 운영할 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영아기는 먹고, 자고, 배변하는 일을 기반으로 하루일과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영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아는 익숙한 일상적 경험을 놀이로 표현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어린이집 생활에 편안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손을 씻을 때 물과 비누 거품이 놀이의 자료가 되어 자연스럽게 거품 놀이를 하기도 하고, 로션을 바를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로션을 짜서 토래와 서로의 손에 바르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낮잠 자는 것이 어려운 영아에게 자유놀이 시간 중 이루어진 인형 낮잠 재우기 놀이를 실제 낮잠 시간에 잠자기와 연계하여 인형을 재우며 자기도 잠들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아에게 일상생활은 곧 놀이이며, 놀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아기에 경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은 생활 습관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관심과 욕구를 수용하면서 일상생활과 놀이를 자연스럽게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아의 놀이와 일상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일상이 놀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Q 일반적으로 영아반의 하루일과는 일관성 있고 규칙적으로 운영될 때 영아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알고 있습니다.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시 하루일과를 융통성 있게 조절하여 놀이를 지원하는 것이 영아에게도 해당할까요?

A 영아는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루일과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가 안정감을 기반으로 신뢰감이 형성된 경우라면 일과 운영이 조금 바뀐다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아반 교사가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영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놀이 욕구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주느냐입니다. 따라서 영아의 흥미 및 계절에 따른 날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내보다 바깥에서 자유놀이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사가 계획한 놀이 시간이 길어지거나 줄어들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아의 하루일과는 놀이에 대한 흥미와 날씨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세요!**



2. 놀이 공간

㉠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아의 놀이에 대한 관심, 놀이의 흐름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하여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영아의 흥미를 존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구성하고 특히 보육실 외에도 다른 놀이 공간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 영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놀이가 지속되고 더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보육실 내 공간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놀이 지원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아반 보육실은 넓지 않기 때문에 보육실 안에서 놀이 영역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은 실제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 내의 변화와 함께 시야를 넓혀 보육실 외 어린이집 곳곳의 공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공간은 크기와 구조가 매우 다양하므로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공통으로 고려할 점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구성은 영아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도나 구석진 공간, 현관이나 로비, 실외 자투리 공간 등 영아가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어린이집 공간 상황에 맞게 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육실 앞 복도 벽을 이용해 탐색할 수 있는 놀잇감을 부착하여 영아가 복도에 나와서 혹은 지나가다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외 역시 벽면에 소리 낼 수 있는 사물을 달아서 수시로 쳐보면서 소리를 탐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영아가 놀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새로운 시선으로 찾아보아요!**



Q 날씨가 안 좋은 경우, 영아가 감기에 걸리거나 황사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고 또 놀이 중 안전상의 문제가 염려되어 바깥 놀이를 가급적 정한 시간 외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아의 바깥 놀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A 오랜 시간을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영아의 경우, 바깥 놀이는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신선한 활력소가 되어줄 뿐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영아의 신체, 사회, 인지, 언어, 정서, 창의적 발달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날씨와 관련하여 급작스러운 추위와 더위, 황사 등, 건강에 유해한 상황은 당연히 노출을 피해야 하지만 미세먼지 등의 지수를 비롯하여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날씨가 아니라면 꾸준히 바깥놀이를 통해 바깥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는 주변 탐색의 욕구가 강하고 대근육 협응이 아직 미숙한 영아를 위해 실외 놀이터 바닥이나 영아가 좋아할 신체 기구 등의 안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항상 안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도 따뜻한 옷차림으로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비 오는 날도 샌 비가 아니라면 우비와 우산을 쓰고 어린이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면서 비 오는 날의 자연을 오감으로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유해한 날씨로 바깥 놀이에 대한 염려가 많은 부모님이 계신 경우, 현관 입구 잘 보이는 곳에 바깥 놀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씨 현황판'을 만들어 담당자가 바깥 놀이 나가기 적합한 날과 나가지 못하는 날은 표정 등의 그림으로 표시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건강을 위해 날씨에 따라 바깥 놀이를 관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가 실외에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과 도전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해주세요!**



3. 놀이 자료


Q 영아가 주도적으로 반죽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데,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영아의 감각을 사용하게 만드는 반복적인 질문과 함께 어느새 교사인 제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사가 영아의 감각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A 교사가 반죽놀이를 하는 영아에게 하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반죽을 만져보세요”,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눌러 볼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거나 다른 영아들을 도와주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교사가 생각한 방법대로 이끌지 않고 영아의 자유로운 탐색 방법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는 충분한 시간과 여러 명이 쓰기에 부족하지 않은 양의 반죽을 사전에 준비하고, 영아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반죽으로 표현해 보도록 기다리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어화 해 줍니다. 교사가 주도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영아의 놀이 과정을 관찰하고 감탄하며 따라가다 보면, 결과물과 상관없이 영아와 교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사가 가지는 오류 중 하나는 영아가 감각적 재료를 이용한 놀이에 참여하면서 매우 즐거워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계속 영아에게 질문하고 과정을 주도하는 순간, 영아에게 그 놀이는 더 이상 진짜 놀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적 자료에 놀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영아가 좋아하는 감각놀이가 되는 걸까요?**
영아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주도할 때 진짜 놀이가 실행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Q 영아는 같은 놀잇감 혹은 같은 놀이를 반복적으로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놀잇감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크레용으로 종이에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놀잇감과 놀이에만 관심은 보이는 영아를 바라보며 그냥 놔두어도 되나 걱정이 되는데 관찰을까요?

A 상품화된 것만이 놀잇감은 아닙니다. 영아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안전한 것은 모두 놀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레용이나 종이는 모두 무한한 놀이 가능성을 가진 놀잇감입니다. 한 가지 용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 수 있고, 놀 때마다 다른 형태, 다른 결과가 나타나므로 오히려 아이의 흥미를 더 끌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가 영아의 그림 그리고 싶은 욕구를 인정하고 실내뿐 아니라 실외 놀이터에 이젤 등을 준비해서 다른 장소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고, 종이의 재질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영아의 관심이 다양한 환경에서 시도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 물이나 모래, 다양한 블록류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놀잇감으로, 매일 반복해서 똑같은 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긴 시간을 두고 영아의 놀이 변화를 관찰해보면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아 놀이의 반복은 익숙함으로의 여정이며 새로운 변화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Q 영아는 생애 어느 때보다 신체의 변화가 크고 활발하므로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대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아를 위한 신체 활동 환경을 구성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A 영아의 신체 크기와 발달에 적합한 놀이 도구를 준비해 두고 바닥이나 벽면은 안전한 재질로 마감하여 영아 스스로가 안전한 환경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영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반복되는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도구를 조정하거나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움직이며 자기 신체를 조절하는 것을 영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는데, 교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영아에게 말로 먼저 안내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것은 주도적으로 혼자서 했지만 경사를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선생님이 손잡아 줄까?”라고 안내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 움직임에 대해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다양한 움직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을 부착하고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며 영아의 신체 움직임에 대해 언어로 표현합니다.

영아가 좋아하는 대근육 움직임 도구 중 하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터널입니다. 영아는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몸 낮게 만들기, 고개 숙이기, 네발로 기기, 배밀이 등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합니다. 교사는 동작의 요소를 잘 이해하고 영아가 한 가지 도구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격려하며 상호작용합니다.

 **영아가 혼자 혹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Q 블록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영아가 많은데 블록놀이는 영아의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놀이중심 보육과정에서 말하는 배움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A 블록 놀이감은 다양한 모양을 가진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아는 여러 형태의 모양이나 크기의 블록을 높이 쌓고 길게 늘어뜨리거나 울타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해 보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공간 지각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수학의 기본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아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만든 구성물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름을 붙여주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므로 영아의 언어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블록놀이가 영아에게 주는 의미 있는 가치 중 하나는 영아가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는 과정을 즐기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단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완성한 블록의 결과물을 보면서 스스로 커다란 성취감을 가짐으로써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발달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아는 자연스럽게 배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블록놀이를 반복하면서 정서적인 즐거움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간, 적절한 재질과 크기의 블록을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아가 블록 놀이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4. 상호작용

Q 영아의 말이 또래에 비해 늦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멍멍이는 어디 있지?” 하면 손가락으로 강아지 인형을 가리키고, “붕붕은?” 하면 놀이감 자동차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아니”라는 말만 합니다. 놀이 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영아의 언어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A 영아의 언어발달은 일반적인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차가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아이가 첫돌 무렵 걸음마를 똑같이 시작한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언어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월 정도 된 영아는 일반적으로 한 단어나 두 단어로 의사표현을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한편 영아는 자신이 언어로 의사 표현을 하기(표현언어)에 앞서 더 많은 어휘를 이해(수용언어, 이해언어)합니다. 따라서 영아와 함께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듣고 말하기를 반복적으로 하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말이 느린 영아와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단어나 짧은 문장을 또박또박 반복하여 명확하게 전달하고 말소리뿐 아니라 표정을 통해서도 아이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영아의 상황을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웃음이나 미소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난 너의 반응이 재밌고 기대된다’라는 것을 영아가 알아차리도록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한 교사의 이와 같은 반응은 영아로 하여금 말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표현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아가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통해 스스로 말하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Q 영아가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모방하여 소꿉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하고 싶어할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영아는 준비된 역할놀이 소품을 보고 자신의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며 역할놀이를 시작하거나 소품을 보고 표현하고 싶은 장면이 떠올라 역할놀이를 해나갑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각 영아의 최근 관심과 경험을 파악하여 역할놀이 소품을 일부 변화시키며 영아의 경험과 상상을 표현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영아는 역할놀이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잇감(인형) 등을 상대로 해서 놀이를 하거나 교사에게 역할을 주기도 하므로, 교사는 영아가 원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교사에게 제시한 역할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역할에 적합한 행동과 말을 하며 놀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반응해야 합니다. 한편 놀이를 살피면서 필요한 소품이 있는지 파악하여 추가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교사가 역할놀이의 내용을 영아의 관심이나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확장하거나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영아는 자기 경험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아가 단순한 행동이나 말을 반복하는 걸 즐기고 있다면, 그 자체를 인정하고 교사도 반복적으로 반응하며 즐겁게 따라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의 관심과 경험을 존중하며 영아의 역할놀이를 즐겁게 따라가 주세요!**



5. 안전

❶ 바깥놀이 시 영아가 자연물에 관심을 보이며 놀이자료로 사용하려고 할 때 안전과 관련하여 걱정되는데, 제재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도록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❷ 자연 속에는 작은 돌맹이부터 잎사귀, 흙이나 모래, 나뭇가지와 열매 등 영아가 관심을 가질만한 많은 놀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돌은 누군가에게 던질까 봐 안 되고, 나뭇가지는 누군가를 찌를까 봐 안 되고, 흙이나 모래는 누군가의 눈에 들어가게 뿌릴까 봐 안 되며 열매는 영아가 집어 먹을까 봐 안 된다는 위험한 요소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실제로 영아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기회 자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린 영아의 경우, 자연물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이 미흡하여 안전관리 차원에서 자연물을 접하는 것을 일부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대체 방안을 안내하여 자연스럽게 자연물에 친숙함을 가질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영아가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하고 자연물을 이용해 놀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❸ 영아가 놀이 중 놀잇감을 서로 가지려다 갈등 상황이 생기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같은 놀잇감을 주어도 또래가 가진 놀잇감을 자기가 가지려고 빼앗는 아이로 인해 자유놀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❹ 영아는 친구와 놀이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친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친구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모르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갈등 상황을 일으킵니다. 일단 놀이 중 갈등 상황이 생기면 안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교사가 몸으로 갈등 상황을 막은 후 다음과 같이 개입해야 합니다. 첫째, 영아의 욕구를 인정하기(친구가 가진 놀잇감을 너도 놀고 싶었구나) 둘째, 친구의 입장 설명하기(친구 것을 빼앗으면 친구가 속상해) 셋째, 용납되지 않는 행동 설명하기(놀고 싶다고 친구가 놀고 있는 놀잇감 빼앗으면 안돼) 넷째, 적절한 대안 알려주기(친구에게 내가 가져가도 되니 하고 물어보자)를 기억하며 영아와 상호작용합니다. 그 외 놀이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을 준비하고 놀이 공간과 시간 또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영아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일한 놀잇감을 충분히 준비하고, 영아가 손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기 전, 교사가 일단 몸으로 막아내는 신속함이 필요해요!**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 신윤승·신혜원(2022). 놀이지도. 경기:파워북.
- 이영신·김지연·김새롬(2023). 영아 교사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Bonawitz, E.L., P. Shafto, H. Gweon, N.D. Goodman, E. Spelke, & L. Schulz. (2011). "The Double Edged Sword of Pedagogy: Instruction Limits Spontaneous Exploration and Discovery." *Cognition* 120 (3): 322-30.
- Cohen, L.E., & J. Emmons. (2017). "Block Play: Spatial Language with Preschool and School-Ag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7 5(6): 967-77.
- Csikszentmihalyi, M. (2014).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The Collected Works of Mihaly Csikszentmihalyi*. Vol. 2. New York: Springer.
- David, E (2008). *The Wisdom of Play: How Children Learn to Make Sense of the World*. [https://elf2.library.ca.gov/pdf/Wisdom of Play. pdf](https://elf2.library.ca.gov/pdf/Wisdom%20of%20Play.pdf).
- Galinsky, E. (2010). *Mind in the Making: The Seven Essential Life Skills Every Child Needs*. New York: Harper Collins.
-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 (2005).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Johnson H. M. (1933). The art of block building. In Hirsch E. S. (Ed.), *The block book* (pp. 9-25).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NAEYC (2019). *THIS IS PLAY: Environments and Interactions that Engage Infants and Toddlers*.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 Pathways. org (2019). *Play: It's More than You Think*. Brochure.
- Peter, Gray (2008). The Value of Play I: The Definition of Play Gives Insights Freedom to quit is an essential aspect of play's definition.
- Wang, J., & K. C. Barrett. (2013). "Mastery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Childhood." In *Handbook of Self-Regulatory Processes in Development: New Direction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s. K.C. Barrett, N.A. Fox, G.A. Morgan, D.J. Fidler, & L.A. Daunhauer, 337-80. New York: Psychology Press.

사례제공기관

구립산곡2동어린이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어린이집

또래또어린이집

상계삼성어린이집

아산병원제2어린이집

원효루미니어린이집

제주KTcs어린이집

제주삼성어린이집

주은어린이집

푸르니아매어린이집

한그루어린이집

한솔어린이집

해밀숲어린이집

햇님데이케어어린이집

햇님어린이집

화성2삼성어린이집

HD현대글로벌R&D센터드림보트어린이집

LG이노텍서울어린이집

SK행복어린이집

(가나다 순)

기획·총괄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본부장)
이혜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부장)
정영혜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부 과장)
임승철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부 주임)

집필진

신윤승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배선영 (배화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이영신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주연빌딩 3~6층
www.kcpi.or.kr, 02)6901-0100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ISBN 978-89-98842-78-9
978-89-98842-79-6 (세트)

본 책의 지적재산권은 한국보육진흥원에 귀속되며,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